

2008년 3월 23일 시행
법원 9급 공개경쟁채용 제1·2차시험
(제 1 교시)

문제책형
①

시험과목	헌 법(25문)	국 어(25문)
	한국사(25문)	영 어(25문)

응시자 준수사항

1. 문제책을 받더라도 시험시작 시간까지 문제내용을 보아서는 안됩니다.
2. 문제책을 받는 즉시 과목편철 순서, 문제누락 여부, 인쇄상태 이상 유무 등을 확인한 후 답안지의 문제책형란에 본인의 책형을 표기합니다.
3. 시험이 시작되면 문제를 주의 깊게 읽은 후 문항의 취지에 가장 적합한 하나의 정답만을 고르며, 문제내용에 관한 질문은 받지 않습니다.
4. 시험시간 종료 후 문제책을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 시험시간이 종료되기 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문제책을 시험장 밖으로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공 지 사 항

공개되는 정답가안에 이의가 있는 응시자는 대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를 통하여 아래와 같이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 아 래 -

1. **정답가안 공개** : 2008. 3. 24.(월) 12:00 이후
[대법원 홈페이지/정보광장/시험정보/시험자료실]에 게시
 2. **이의제기**
기간 : 2008. 3. 24.(월) 12:00 ~ 2008. 3. 26.(수) 17:00
방법 : [대법원 홈페이지/정보광장/시험정보/정답이의제기]에 게시
 3. **최종정답 공개** : 2008. 4. 4.(금) 12:00 이후
[대법원 홈페이지/정보광장/시험정보/시험자료실]에 게시
- ※ 대법원 홈페이지 정답이의제기 전용게시판 이외의 방법에 의한 이의제기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법 원 행 정 처

【헌 법 25문】

【문 1】 다음 중 기본권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통설·판례에 의함)

- ① 헌법 제37조 제2항은 기본권 제한에 있어 일반적 법률유보를 규정한 조항이다.
- ② 기본권의 제한은 원칙적으로 국회에서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 ③ 과잉금지 원칙은 국가작용의 한계를 명시하는 것인데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정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보호하려는 공익이 침해되는 사익보다 더 커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 어느 하나에라도 저촉되면 위헌이 된다는 헌법상의 원칙이다.
- ④ 기본권의 제한에서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면 당연히 본질적 내용이 침해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기본적인 태도이다.

【문 2】 위헌법률심판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의 제정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된 경우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그 법률의 위헌여부를 묻는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 ② 이미 폐지된 법률은 거듭 효력을 상실시킬 실익이 없기 때문에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③ 위헌심사의 대상이 되는 법률은 국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된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의미하므로 헌법의 개별규정 자체는 포함되지 않는다.
- ④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

【문 3】 국회와 관련된 다음 내용 중 가장 타당하지 않은 것은?

- ① 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
- ② 국회의원은 현행법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 ③ 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 ④ 국회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이때 제명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문 4】 사법권의 독립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잘못된 것은?

- ①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임기는 모두 6년이나 사법부의 노쇠화를 방지하기 위해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중임과 연임이 금지된다.
- ② 사법권의 독립은 법원의 자율을 위한 법원의 독립과 재판의 독립을 위한 법관의 독립을 그 내용으로 한다.
- ③ 탄핵결정에 의하여 파면된 법관은 결정선고가 있는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하면 법관에 임용될 수 없다.
- ④ 대법원은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민사집행과 보전처분의 절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문 5】 입법에 관한 대통령의 권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정부안으로 국회에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 ② 대통령은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서한으로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
- ③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 ④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법률안이 정부에 이송되어 온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으나, 국회의 폐회중에는 그러하지 못한다.

【문 6】 헌법재판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헌법재판소에서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권한쟁의심판에 대한 인용결정을 할 때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 ② 재판부는 재판관 7인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
- ③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재판소에 재판관 3인으로 구성되는 지정재판부를 두어 헌법소원심판의 사전심사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 ④ 헌법재판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심판에 관한 절차,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문 7】 사면제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광의의 사면이라 함은 혐의의 사면은 물론 감형 그리고 복권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 ② 사면권은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과벌 또는 징계법규에 의한 징계를 대상으로 할 수는 없다.
- ③ 일반사면은 대통령령으로 하되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고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④ 특별사면은 형집행면제의 효과가 있다.

【문 8】 다음 중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헌법 제117조 제1항은 자치사무와 단체위임사무를 처리할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게 직접 부여하고 있다.
- ② 지방의회의 조직·권한·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 ③ 지방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되면 시·도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재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고, 재의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의결사항을 이송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지방의회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 ④ 지방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어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로부터 재의요구지시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의를 요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대법원에 직접 제소할 수 있다.

【문 9】 다음 중 감사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감사원은 최고 회계감사기관으로서 공무원의 직무감찰권을 동시에 보유한다는 점에서 비교법적 특색이 있다.
- ② 감사원은 변상책임의 유무에 관한 판정권을 갖는다.
- ③ 감사원은 대통령 직속기관이므로 직무에 관하여 국무총리의 지휘를 받지 아니하고 대통령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 ④ 감사결과 범죄혐의를 발견하여도 수사권은 없고 수사기관에 고발할 뿐이다.

【문10】 재판제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타당하지 않은 것은?

- ① 판결은 반드시 공개되어야 하나,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비공개 결정은 이유를 개시하여 선고하고, 헌법과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비공개 재판을 한 경우에는 상고이유가 된다.
- ③ 재판공개 대상에는 가사비송절차, 소송법상 결정·명령도 포함된다.
- ④ 누구든지 법정안에서는 재판장의 허가없이 녹화·촬영·중계방송 등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문11】 헌법 개정절차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① 국회의원이 헌법개정안을 발의함에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 ②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한다.
- ③ 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회부하여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 ④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문12】 재판청구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판례에 의함)

- ① 국가배상심의회의 배상결정에 신청인이 동의한 때에는 재판상의 화해가 성립한 것으로 보아 재심의 소에 의하여 취소 또는 변경되지 않는 한 그 효력을 다룰 수 없도록 하겠다고 하더라도 이는 신청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므로, 신청인의 재판청구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
- ② 법원은 국민의 재판청구권에 근거하여 법령에 정한 국민의 정당한 재판청구행위에 대하여만 재판을 할 의무를 부담하고 법령이 규정하지 아니한 재판청구행위에 대하여는 그 의무가 없다.
- ③ 상소심에서 심판을 받을 권리를 헌법상 명문화한 규정이 없고 상소문제가 일반 법률에 맡겨진 우리 법제하에서 재판청구권에 모든 사건에 대해 상소심 절차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까지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할 수는 없다.
- ④ 헌법에 명문의 규정이 없으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되고 있음이 명백하다.

【문13】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의 정당이나 정치자금에 관한 판례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초·중등학교 교원에 대해서는 정당가입과 선거운동의 자유를 금지하면서 대학교원에게는 이를 허용한다 하더라도, 이는 양자간 직무의 본질이나 내용 그리고 근무태양이 다른 점을 고려할 때 합리적인 차별이라고 할 것이므로, 헌법상의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 ② 대통령선거에 출마할 정당의 후보자를 선출하거나 정당 대표를 선출하는 당내 경선은 정당 내부의 행사에 불과하므로, 정당의 당내 경선에 관한 선거운동을 위하여 후보자에게 제공된 금품은 정치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③ 정당에 보조금을 배분함에 있어 교섭단체의 구성 여부에 따라 차등을 두는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2004. 3. 12. 법률 제7191호로 개정되고, 2005. 8. 4. 법률 제768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 내지 제3항은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④ 우리 헌법의 대의민주적 기본질서가 제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의회 내의 안정된 다수세력의 확보를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군소정당의 배제는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다. 또한 지역적 연고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정당정치풍토가 우리의 정치현실에서 자주 문제시되고 있다는 점에서 볼 때, 단지 특정지역의 정치적 의사만을 반영하려는 지역정당을 배제하려는 취지가 헌법에 어긋난 입법목적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문14】 우리 헌법상의 시장경제질서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광물 기타 중요한 지하자원·수산자원·수력과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은 특허의 대상이 아니다.
- ②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
- ③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
- ④ 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로 인하여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영기업은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

【문15】 선거와 관련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타당하지 않은 것은?
(판례에 의함)

- ① 선거관련 법률에서 저조한 투표율에 불구하고 유효투표의 다수만 얻으면 당선인으로 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선거의 대표성의 본질을 침해하고 국민주권주의에 위반한다고 볼 수 없다.
- ② 1인 1표제를 채택하여 유권자에게 별도의 정당투표를 인정하지 않고 지역구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얻은 득표비율에 따라 비례대표의석을 배분하는 방식은 평등선거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 ③ 과열선거운동의 폐해를 방지하고 공정한 선거운동을 실현하기 위하여 선거운동기간에 일정한 제약을 두는 것은 위헌이 아니다.
- ④ 국회의원 선거구간 인구편차의 허용한계는 2001년 현재 전국 선거구 평균인구수의 상하 50%로 볼 수 있지만, 상당기간 지난 후에는 상하 33⅓% 또는 그 미만을 기준으로 위헌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문16】 공무원제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틀린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근로3권을 가진다.
- ② 공무원의 범죄행위가 직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도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 지방공무원의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한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된다.
- ③ 헌법 제7조는 직업공무원제도가 국민주권원리에 바탕을 둔 민주적이고 법치주의적인 공직제도임을 밝힌 것이다.
- ④ 직업공무원제도에서 말하는 공무원의 범주에 정치적 공무원이나 임시직 공무원은 포함되지 않는다.

【문17】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본 것은?

- 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 ② 법원행정처장의 민원인에 대한 법령질의회신
- ③ 재판장의 소송지휘권의 행사
- ④ 수사기관의 진정사건에 대한 내사종결처리

【문18】 다음 중 예산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 ① 정부는 회계년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년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년도 개시 30일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 ② 한 회계년도를 넘어 계속하여 지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정부는 연한을 정하여 계속비로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③ 정부는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 ④ 국회는 정부의 동의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하거나 삭감할 수 없다.

【문19】 직업의 자유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직업의 자유에서의 직업이란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계속적인 소득활동을 의미하며 그러한 내용의 활동인한 그 종류나 성질을 불문한다.
- ② 법인은 기본권의 성질에 따라 그 주체가 될 수 있으므로 직업수행의 자유의 주체가 된다.
- ③ 직업결정의 자유나 전직(轉職)의 자유는 그 성격상 직업종사(직업수행)의 자유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더욱 넓은 법률상의 규제가 가능하며, 따라서 다른 기본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한이 가하여질 수 있다.
- ④ 단란주점에 미성년자의 출입을 제한하고 미성년자에 대한 주류제공을 금지하는 것은 직업수행의 자유를 과잉제한하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문20】 근로3권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헌법은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있다.
- ② 근로3권은 ‘사회적 보호기능을 담당하는 자유권’ 또는 ‘사회권적 성격을 띤 자유권’이라고 할 수 있다.
- ③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④ 단체교섭권에는 단체협약체결권이 포함되지 않는다.

【문21】 평등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판례에 의함)

- ① 주식회사 연합뉴스를 국가기간뉴스통신사로 지정하고 이에 대하여 재정지원 등 여러 가지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②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의 원칙은 절대적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실질적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다.
- ③ 국·공립사범대학 및 교육대학 졸업자를 교사로 우선하여 채용하도록 한 것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
- ④ 존·비속관계에 의한 가중처벌을 규정한 형법 제259조 제2항(존속상해치사죄)은 그 차별적 취급에 합리적 근거가 있어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문22】 참정권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참정권은 국민주권의 상징적 표현으로서 국민의 가장 중요한 기본적 권리의 하나이며 다른 기본권에 대하여 우월적 지위를 가진다.
- ② 선거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되는 것으로서 선거법의 제정에 의하여 비로소 구체화된다고 할 수 있다.
- ③ 대통령으로 선거될 수 있는 자는 선거일 현재 40세에 달하여야 한다.
- ④ 주민투표권도 그 성질상 헌법이 보장하는 참정권이다.

【문23】 다음 중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통설·판례에 의함)

- ① 면책특권은 의원 개인의 의정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것일 뿐 국회의 헌법에 의하여 부여된 권한행사나 그 기능수행의 보장과는 무관하다.
- ② 국회 내에서의 징계책임이 면제된다.
- ③ 국회의 본회의에서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만 면책특권이 인정된다.
- ④ 원내에서 행한 발언과 표결일지라도 그것을 다시 원외에서 발표하거나 출판하는 경우에는 면책되지 아니한다.

【문24】 납세의 의무에 관한 다음 내용 중 가장 타당하지 아니한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부부자산소득합산과세는 혼인한 부부를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사실혼관계의 부부나 독신자에 비하여 차별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36조 제1항에 위반된다.
- ② 납세의무자는 자신이 납부한 세금을 국가가 효율적으로 사용하는가를 감시할 수 있으므로, 재정사용의 합법성과 타당성을 감시하는 납세자의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않은 기본권이다.
- ③ 납세의 의무는 역사적으로는 국민의 재산권의 보장을 위한 소극적 성격을 가지는 동시에 국민주권주의 사상하에서는 국가공동체의 재정적 기초의 형성을 의미하는 적극적 성격을 가진다.
- ④ 과세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할 때에는 외국인에 대해서도 과세할 수 있다.

【문25】 양심의 자유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의 결정례와 다른 것은?

- ① 공정거래위원회가 당해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법 위반사실의 공표’를 명할 수 있도록 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7조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 ② 사죄광고의 강제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 ③ 국가보안법위반 및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수형자의 가석방결정시 제출하도록 한 가석방심의등에관한규칙 제14조의 준법서약은 양심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이다.
- ④ 양심상의 이유로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권리는 단지 헌법 스스로 이에 관하여 명문으로 규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될 수 있으나, 법 적용기관이 양심우호적 법적용을 통하여 양심을 보호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입법을 보완할 것인지에 관하여 숙고하여야 한다.

【국 어 25문】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문 1 - 3】

(가) 오늘날, 우리는 민족 문화의 전통을 연암에게서 찾으려고는 할지언정, 고문파에서 찾으려고 하지는 않는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민족 문화의 전통에 관한 ㉠해명(解明)의 열쇠를 제시(提示)하여 주는 것이 아닐까?

전통은 물론 과거로부터 이어 온 것을 말한다. 이 전통은 대체로 그 사회 및 그 사회의 구성원(構成員)인 개인(個人)의 몸에 배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전통은 우리의 현실에 작용(作用)하는 경우(境遇)가 있다. 그러나 과거로부터 이어 온 것을 ㉡무턱대고 모두 전통이라고 한다면, 인습(因襲)이라는 것과 구별(區別)이 서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인습을 버려야 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만, 계승(繼承)해야 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여기서 우리는, 과거에서 이어 온 것을 객관화(客觀化)하고, 이를 비판(批判)하는 입장에 서야 할 필요를 느끼게 된다. 그 비판을 통해서 현재(現在)의 문화 창조(文化創造)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것만을 우리는 전통이라고 불러야 할 것이다. 이같이, 전통은 인습과 구별될뿐더러, 또 단순한 유물(遺物)과도 구별되어야 한다. 현재에 있어서의 문화 창조와 관계가 없는 것을 우리는 문화적 전통이라고 부를 수가 없기 때문이다.

(나) 한편, 우리가 계승(繼承)해야 할 민족 문화의 전통으로 여겨지는 것들이, 연암의 예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과거의 인습(因襲)을 타파(打破)하고 새로운 것을 창조하려는 노력(努力)의 결정(結晶)이었다는 것은 지극히 중대한 사실이다.

(다) 피와 뼈와 살을 조상(祖上)에게서 물려받았을 뿐, 문화(文化)라고 일컬을 수 있는 거의 모든 것이 서양(西洋)에서 받아 들인 것들인 듯싶다. 이러한 현실(現實)을 앞에 놓고서 민족 문화(民族文化)의 전통(傳統)을 찾고 이를 계승(繼承)하자고 한다면, 이것은 편협(偏狹)한 배타주의(排他主義)나 국수주의(國粹主義)로 오인(誤認)되기에 알맞은 이야기가 될 것 같다.

그러면 민족 문화의 전통을 말하는 것은 반드시 보수적(保守的)이라는 ㉢명예를 메어야만 하는 것일까? 이 문제(問題)에 대한 올바른 해답(解答)을 얻기 위해서는, 전통이란 어떤 것이며, 또 그것은 어떻게 계승되어 왔는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라) 요컨대, 우리 민족 문화의 전통은 부단(不斷)한 창조 활동(創造活動) 속에서 이어 온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계승(繼承)해야 할 민족 문화의 전통은 형상화(形象化)된 물건(物件)에서 받는 것도 있지만, 한편 창조적(創造的) 정신 그 자체(自體)에도 있는 것이다.

(마) 원효는 당시의 유행(流行)인 ㉣서학(西學)을 하지 않았다. 원효의 ‘화엄경소(華嚴經疏)’가 중국(中國) 화엄종(華嚴宗)의 제3조(第三祖) 현수(賢首)가 지은 ‘화엄경탐현기(華嚴經探玄記)’의 본이 되었다. 원효는 여러 종파(宗派)의 분립(分立)이라는 불교계(佛敎界)의 인습에 항거(抗拒)하고, 여러 종파의 교리(敎理)를 통일(統一)하여 해동종(海東宗)을 열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승려(僧侶)들이 귀족(貴族) 중심의 불교(佛敎)로 만족할 때에, 스스로 마을과 마을을 돌아다니며 배움 없는 사람들에게 진도(傳道)하기를 꺼리지 않은, 민중 불교(民衆佛敎)의 창시자(創始者)였다. 이러한 원효의 정신은 우리가 이어받아야 할 귀중한 재산(財産)이 아닐까?

(바) 이러한 의미에서, 민족 문화의 전통을 무시(無視)한다는 것은 지나친 자기 학대(自己虐待)에서 나오는 편견(偏見)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첫머리에서 제기(提起)한 것과 같이, 민족 문화의 전통을 계승하자는 것이 국수주의(國粹主義)나 배타주의(排他主義)가 될 수는 없다. 오히려, 왕성(旺盛)한 창조적 정신은 선진 문화(先進文化) 섭취(攝取)에 인식하지 않을 것이다.

다만, 새로운 민족 문화의 창조(創造)가 단순히 과거의 묵수(墨守)가 아닌 것과 마찬가지로, 또 단순한 외래 문화(外來文化)의 모방(模倣)도 아닐 것임은 스스로 명백한 일이다. 외래 문화도 새로운 문화의 창조에 이바지함으로써 뜻이 있는 것이고, 그러함으로써 비로소 민족 문화의 전통을 더욱 빛낼 수가 있는 것이다.

【문 1】 위 글에서 (가)~(마)를 논지 전개에 맞게 바르게 배열한 것은?

- ① (나)-(다)-(가)-(마)-(라)
- ② (다)-(가)-(나)-(마)-(라)
- ③ (나)-(가)-(마)-(다)-(라)
- ④ (다)-(나)-(마)-(가)-(라)

【문 2】 위 글에 나타난 필자의 태도와 거리가 먼 것은?

- ① 민족 주체성을 지키기 위해 국수주의나 배타주의는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니다.
- ② 거의 모든 문화가 서구화된 현실 속에서 전통 문제를 철저히 고찰할 필요가 있다.
- ③ 새로운 민족 문화 창조에 도움이 된다면 외래문화도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한다.
- ④ 과거의 인습을 타파하고 새로운 것을 창조하려는 전통을 이어 받아야 한다.

【문 3】 위 글에서 밑줄 친 ㉠ ~ ㉣의 의미로 옳바르지 않은 것은?

- ① ㉠ - 시사(示唆)하여 ② ㉡ - 비판 없이
- ③ ㉢ - 구속을 받아야만 ④ ㉣ - 당나라 유학

【문 4】 다음 관용어의 쓰임이 바르지 않은 것은?

- ① 귀가 여러다 → 속는 줄도 모르고 남의 말을 그대로 잘 믿는다.
- ② 머리를 맞대다 → 어떤 문제에 대하여 의논하고 결정하기 위하여 여러 사람이 만나 지혜를 모으다.
- ③ 귀가 뚫리다 → 말을 잘 알아듣게 되다.
- ④ 눈에 밝히다 → 지난 일이나 대상의 모습이 눈에 보이는 듯 기억에 생생하다.

【문 5】 다음 중 우리말 어법에 맞고 자연스러운 문장은?

- ① 이번 사업 실패로 집안이 풍지박산이 되었다.
- ②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서는 집중력을 필요로 합니다.
- ③ 동생이 반 대표로 뽑혀져서 교내 웅변대회에 나가게 되었다.
- ④ 갑작스런 태풍으로 남해안 지방이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문 6 - 7】

..... 펼쳐진 부채가 있다. 부채의 끝 넓은 테두리 쪽을, 철학과 학생 이명준이 걸어간다. 가을이다. 거드랑이에 낀 대학신문을 꺼내 들여다본다. 약간 자랑스러운 듯이. 여자를 깔보지는 않아도, 알 수 없는 동물이라고 여기고 있다.

책을 모으고, 미래를 구경하러 다닌다.

정치는 경멸하고 있다. 그 경멸이 실은 강한 관심과 아버지 일 때문에 그런 모양으로 나타난 것인 줄은 알고 있다. 다음에, 부채의 안쪽 좀더 좁은 너비에, 바다가 보이는 분지가 있다. 거기서 보면 갈매기가 날고 있다. 윤애에게 말하고 있다. 윤애 날 믿어 줘. 알몸으로 날 믿어 줘. 고기 썩는 냄새가 역한 배 안에서 물결에 흔들리다가 깜빡 잠든 사이에, 유토피아의 꿈을 꾸고 있는 그 자신이 있다. 조선인 폴호즈 숙소의 창에서 불타는 저녁놀의 힘을 부러운 듯이 바라보고 있는 그도 있다. 구겨진 바바리코트 속에 시래기처럼 바랜 심장을 하고 은혜가 기다리는 하숙으로 돌아가고 있는 9월의 어느 저녁이 있다. 도어에 뒤통수를 부딪치면서 악마도 되지 못한 자기를 언제까지나 웃고 있는 그가 있다. 그의 삶의 터는 부채꼴, 넓은 데서 점점 안으로 오므라들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은혜와 둘이 안고 텅굴던 동굴이 그 부채꼴 위에 있다. 사람이 안고 텅구는 목숨이 꿈이 다르지 않느니. 어디선가 그런 소리도 들렸다.

㉠그는 지금, 부채의 사복 자리에 서 있다. 삶의 광장은 좁아지다 못해 끝내 그의 두 발바닥이 차지하는 넓이가 되고 말았다. 자 이제는? 모르는 나라, 아무도 자기를 알 리 없는 먼 나라로 가서, 전혀 새사람이 되기 위해 이 배를 탔다. 사람은,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자기 성격까지도 마음대로 골라잡을 수도 있다고 믿는다. 성격을 골라잡다니! 모든 일이 잘 될 터이었다. 다만 한 가지만 없었다면. 그는 두 마리 새들을 방금까지 알아보지 못한 것이었다. 무덤 속에서 몸을 푼 한 여자의 용기를, 방금 태어난 아기를 한 팔로 보듬고 다른 팔로 무덤을 깨뜨리고 하늘 높이 치솟는 여자를, 그리고 마침내 그를 찾아내고야 만 그들의 사랑을.

돌아서서 마스트를 올려다본다. 그들은 보이지 않는다. 바다를 본다. 큰 새와 꼬마 새는 바다를 향하여 미끄러지듯 내려오고 있다. 바다. 그녀들이 마음껏 날아다니는 광장을 명준은 처음 알아본다. 부채꼴 사복까지 뒷걸음질친 그는 지금 펑그르르 뒤로 돌아선다. ㉡제정신이 든 눈에 비친 푸른 광장이 거기 있다.

【문 6】 위 글의 서술상의 특징과 효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주인공의 회상을 통하여 과거와 현재가 연결되고 있다.
- ② 상징적 기법을 통해 인물의 고뇌를 형상화하였다.
- ③ ‘의식의 흐름’ 기법을 통해 주인공의 내면세계를 서술하였다.
- ④ 풍자적인 언어 사용이 작품의 비극성을 약화시키고 있다.

【문 7】 밑줄 친 ㉠, ㉡의 의미로 바르지 않은 것은?

- ① ㉠ - 진정한 광장을 찾아 나섰던 주인공의 삶의 과정을 고려해 볼 때, 부채는 ‘주人公의 삶 자체’를 의미한다.
- ② ㉠ - ‘사복 자리’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어 선택의 여지가 없는 곳’을 의미한다.
- ③ ㉡ - 주인공의 적극적 선택의 결과로 얻어진 공간을 의미한다.
- ④ ㉡ - 이념의 대립과 사상의 갈등이 없는 평안한 휴식처를 의미한다.

※ 다음 시를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문 8 - 9】

㉠판잣집 유리막지에
아이들 얼굴이
불타는 해바라기 마냥 걸려 있다.

내려쪼이던 햇발이 눈부시어 돌아선다.
나도 돌아선다.
울상이 된 그림자 나의 뒤를 따른다.

어느 접어든 골목에서 ㉢걸음을 멈춘다.
㉡젓터미가 소복한 울타리에
㉣개나리가 망울졌다.

저기 언덕을 내려 달리는
㉠소녀의 미소엔 앞니가 빠져
죄 하나도 없다.

나는 술 취한 듯 흥그러워진다.
그림자 웃으며 앞장을 선다.

【문 8】 위 시에서 희망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 소재는?

- ① ㉠
- ② ㉡
- ③ ㉢
- ④ ㉣

【문 9】 ㉠에서 암시하고자 하는 바로 가장 적당한 것은?

- ① 절망적 현실을 밝게 보려는 시각
- ② 가난에 대한 두려움
- ③ 현장감을 강조하는 행위
- ④ 현실을 벗어나고자 하는 절규

【문 10】 다음 ㉠ ~ ㉣에 들어갈 말을 차례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 누가 이번 경기에서 우승할 것인지 (㉠)하기 어렵다.
- 간단한 인사로 환영의 말을 (㉡)합니다.
- 이 정도의 인원이 식사를 할 경우 (㉢)을 잘해야 낭비를 줄일 수 있다.
- 성공과 실패는 철저한 계획을 세워서 실천했느냐로 (㉣)이 난다.

- ① 가늠-갈음-가늠-가름
- ② 가늠-가늠-갈음-가름
- ③ 가름-갈음-가늠-가름
- ④ 가름-가늠-가늠-갈음

【문11】 다음의 밑줄 친 표현들 가운데 바르지 못한 것은?

- ① 무슨 이유인지 그는 안절부절하고 서 있었다.
- ② 선두에 서려면 힘차게 앞으로 나아가라.
- ③ 추운데 밖에 나가지 않도록 해라.
- ④ 막내아들은 아직 학교 가기 전이라 글씨가 괴발개발이다.

【문12】 다음 시에 대한 감상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앞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 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 ① 이 시의 시상 전개 과정은 과거-미래-현재 순이다.
- ② ㉠, ㉡이 공통적으로 지니는 의미는 ‘압울한 시대 상황’이다.
- ③ ㉢은 화자가 추구하는 순수 이상적 가치를 의미한다.
- ④ ㉣은 시련 속에서도 양심을 지키며 사는 순결한 삶을 의미한다.

【문13】 다음 괄호 속의 한자가 틀린 것은?

자본주의 세계 ㉠체제(體制)의 성립과 더불어 지구화는 새로운 면모를 드러낸다. ㉡강력(強力)한 국민국가 체제를 먼저 정립한 서구가 비서구를 식민지화하는 ㉢양상(樣象)이 그것이다. 서구의 식민주의에 대해 비서구는 민족주의로 대항한다. 식민주의와 민족주의가 뚜렷한 특징으로 나타나는 16세기 자본주의 세계 체제 이후의 지구화를 우리는 2차 지구화라 부를 수 있다. 2차 지구화에서는 국민국가가 주요한 역사적 ㉣행위(行爲)자라 하겠다.

- ① ㉠ ② ㉡ ③ ㉢ ④ ㉣

【문14】 다음을 하나의 문단으로 엮을 때 가장 자연스러운 것은?

(가)그러나 만사가 겉으로 보이는 대로만은 아니다.
(나)뱀과 인간의 다른 점은 무엇인가?
(다)분명히 뱀은 배로 기고, 인간은 발로 똑바로 걷는다.
(라)정신적으로는 배를 땅에 기는 인간이 있지 않은가?

- ① (가)-(다)-(나)-(라)
- ② (가)-(라)-(나)-(다)
- ③ (나)-(다)-(가)-(라)
- ④ (나)-(가)-(다)-(라)

【문15】 다음 글에서 언급된 내용으로 보기에 가장 어려운 것은?

3세기경의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여러 부족의 생활 상태를 기록한 ‘삼국지(三國志) 위지(魏志) 동이전(東夷傳)’과 기타 중국 사적(史籍)의 단편적인 기록들에 의하면, 어느 부족 사회에서나 일년에 한두 차례의 대회를 열고 제천 의식(祭天儀式)을 거행하면서, 부족 의식을 연마하고 가무 백희(歌舞百戲)를 연행(演行)하였다고 하였는데, 여기서 우리는 우리 나라의 원시적 축제를 볼 수 있을 것 같다. 부여의 영고(迎鼓), 고구려의 동맹(東盟), 예의 무천(舞天), 마한의 춘추제(春秋祭) 등을 그 대표적인 고대 제의(祭儀)로 들 수 있는데, 그것은 ‘연일 음식 가무(連日飲食歌舞)’ 또는 ‘주야 음주 가무(晝夜飲酒歌舞)’ 하는 축제였으나, 아직 의례(儀禮)에서 분화되지 않은 단계로 보인다.

이러한 제천 의례의 전통은 국가적 행사인 공의(公儀)와, 민간의 마을굿(도당굿, 별신굿, 단오굿, 동제 등)의 두 갈래로 전승되어 오면서 우리 나라 축제의 맥을 이어 왔다고 할 수 있다.

먼저, 신라의 대표적인 공의는 팔관회였는데, 진흥왕 12년(551년)에 전사한 사졸들을 위한 위령제로서 시작하였다고 한다. 이를 계승한 고려조의 팔관회는 국가적 행사로 고구려의 동맹과 신라의 팔관회를 통합한 민족적 수호제로서 중동(仲冬)에 행하여졌는데, 상원(上元)의 연등회와 더불어 양대 국가 축전의 행사였다. 천령(天靈)과 오악 명산(五岳名山), 대천(大川), 용신(龍神) 등 토속신에 대한 제천인 팔관회나 불사(佛事)의 제천인 연등회에서는 그 대상이 다를 뿐, 양자는 다 같이 소회일(小會日)과 대회일(大會日)이 있어, 궁중의 뜰에 윤등 일좌(輪燈一座)를 놓고, 사방에 향등(香燈)을 밝히고, 높이 5장이나 되는 채봉(綵棚)을 양쪽에 설치하고, 그 앞에서 가무 백희를 봉정하고, 더불어 주과(酒果)와 음악으로 대축연을 베풀며, 제불(諸佛)과 천지 신명(天地神明)을 즐겁게 하여 국가와 왕실의 태평을 기원하였다. 이 때, 백관이 행례하고, 왕은 위봉루에 출어하여 이를 보았다. 특히, 대회일에는 송의 상인, 여진, 탐라, 일본 등의 외국인이 조하(朝賀)하여 예물과 명마(名馬) 등을 바치는 국제적 행사의 성격을 띠었다.

- ① 신라 팔관회의 구성
- ② 우리 나라 축제의 기원
- ③ 고대 제천 의례의 목적
- ④ 고려 팔관회의 특성

【문16】 밑줄 친 부분의 단어 사용이 올바른 것은?

- ① 설령탕에는 깎두기를 곁들여 먹어야 제격이다.
- ② 그녀는 오자마자 균세 떠났다.
- ③ 내 노래로 분위기는 절정에 다달았다.
- ④ 이번에 나온 자동차는 깎질만 우리 것일 뿐 대부분 외제이다.

【문17】 다음 글의 ()에 들어가기에 적절하지 않은 한자 성어는?

이번 조치로 잠깐 숨은 돌리겠지만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은 채 방치하는 ()만으로는 추후 새로운 문제가 야기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 ① 고식지계(姑息之計) ② 미증유(未曾有)
- ③ 하석상대(下石上臺) ④ 미봉책(彌縫策)

국 어 (4-4)

【한국사 25문】

【문 1】 다음은 어느 민족 운동가의 약력이다. (가)에 들어갈 활동으로 올바른 것은?

1919년 만주 지린성에서 윤세주 등과 조선 의열단 조직
1932년 난징으로 이동, 이후 조선 혁명 간부 학교 창립
1935년 민족 혁명당 조직
1938년 조선 민족 전선 연맹 결성, 조선 의용대 창설
1942년 (가)
1958년 북한에서 숙청됨

- ① 국내 민족주의자 및 공산주의자들과 손을 잡고 함경도 보천보를 습격하였다.
- ② 조선 독립 동맹이 이끄는 조선 의용군에 흡수되어 태평양 전쟁에 참전하였다.
- ③ 중국의 국공 내전에 참전하였다가 그 뒤 북한으로 들어가 인민군으로 편입되었다.
- ④ 일부 병력을 이끌고 한국 광복군에 합류하여 광복군의 조직과 병력이 증강되었다.

【문 2】 일제 시기 밑줄 친 이것을 이론적으로 반박한 사학자의 활동은?

이것은 한국이 여러 정치적 사회적 변화를 겪으면서도 능동적으로 발전하지 못하였으며, 개항 당시 조선 사회가 10세기 말 고대 일본의 수준과 비슷하다는 주장이다. 특히 근대 사회로 이행하는데 필수적인 봉건 사회가 형성되지 못하여 사회·경제적으로 낙후한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우리나라의 근대화를 위해서는 일본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침략 미화론으로 이어졌다.

- ① 사적 유물론에 입각하여 한국사를 세계사적 보편성 위에 체계화하였다.
- ② 개별적 사실을 객관적으로 밝히려는 실증주의 역사 연구 방법론을 따랐다.
- ③ 고대사 연구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민족주의 사학자들의 정신사관을 비판하였다.
- ④ 민족의 고유한 문화 전통과 정신을 강조하여 민족 독립의 정신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문 3】 다음 조약들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가) 을사 조약
(나) 제2차 영·일 동맹
(다) 포츠머스 강화 조약
(라) 가쓰라·태프트 밀약

- ① (가) - (나) - (다) - (라) ② (나) - (라) - (다) - (가)
- ③ (다) - (가) - (나) - (라) ④ (라) - (나) - (다) - (가)

【문 4】 다음 중 주시포 양식의 목조 건물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안동 봉정사 극락전 ㄴ.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
ㄷ. 예산 수덕사 대웅전 ㄹ. 사리원 성불사 응진전

- ① ㄱ ② ㄱ, ㄴ
- ③ ㄱ, ㄴ, ㄷ ④ ㄱ, ㄴ, ㄷ, ㄹ

【문 5】 다음 자료에 나오는 지역과 관련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복잡한 역사적 논박 뒤에 숨겨진 중국의 '동북공정'은 결국 이 지역에 대한 영토적 욕망의 표현이라는 분석이 일반적이다. 이 지역은 대략적으로 중국 지린성 동남쪽, 지금의 연변 조선인 자치주에 해당되는 곳인데, 1909년 청과 일본이 체결한 조약에 의해 청의 영토로 편입되었다.

- ○○신문 -

- ① 원·명 교체기를 이용하여 공민왕 때 무력으로 수복하였다.
- ② 조선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사민 정책을 실시하여 개발하였다.
- ③ 이곳에 거주하던 한인들은 1937년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당하였다.
- ④ 토문강의 해석 차이로 조선과 청 사이에 영토 귀속 문제가 발생하였다.

【문 6】 다음은 조선 후기 경제 변화에 대한 글이다. 밑줄 친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서민들은 점차 경제적 변화를 적극적으로 의식하고, 이에 대응하여 삶의 자세를 바꾸어 갔다. 농민들은 생산력을 높이기 위하여 ㉠새로운 영농방법을 추구하였고, ㉡상품 작물을 재배하여 소득을 늘리려고 하였다. ㉢상인들도 상업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대자본을 가진 상인들도 출현하였다. ㉣수공업 생산도 활발해져 민간에서 생산 활동을 주도하여 갔다. 이러한 과정에서 자본 축적이 이루어지고, 지방의 상공업 활동이 활기를 띠었으며, 상업 도시가 출현할 수 있었다.

<보기>

- (가) ㉠ - 남부 지방 일부에 처음으로 이앙법이 보급되기 시작하였다.
(나) ㉡ - 쌀의 상품화가 활발해지면서 밭을 논으로 바꾸는 현상이 활발해졌다.
(다) ㉢ - 금난전권이 폐지되어 시전 상인의 활동이 크게 활성화되었다.
(라) ㉣ - 원료의 구입과 제품의 처분에서 대부분 상업 자본의 지배를 받았다.

- ① (가), (다) ② (나), (라)
- ③ (가), (다), (라) ④ (가), (나), (다), (라)

【문 7】 다음은 조선 후기 호락논쟁에 관련한 글이다. ㉠ 사상과 ㉡ 사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르면?

호락논쟁(湖洛論爭)은 인간과 사물의 본성에 다르다는 인물성이론(人物性異論)을 주장한 충청도지역의 호론과 인간과 사물의 본성이 같다는 인물성동론(人物性同論)을 주장한 서울·경기지역의 낙론 사이의 논쟁이다. 뒤에 호론은 ㉠ 으로 연결되었으며, 낙론은 ㉡ 으로 연결되었다.

<보기>

- (가) ㉠ - 홍선대원군의 대외 정책을 지지하였다.
(나) ㉡ - 의병 항쟁의 사상적 바탕이 되었다.
(다) ㉠ - 박규수, 오경석 등에게 영향을 주었다.
(라) ㉡ - 청의 문물을 수용하자고 주장하였다.

- ① (가), (나) ② (가), (라)
- ③ (나), (다) ④ (다), (라)

【문 8】 다음 주장을 배격하면서 나타난 민족 운동은?

지금의 조선 민족에게는 왜 정치적 생활이 없는가? 일본이 조선을 병합한 이래로 조선인에게에는 모든 정치 활동을 금지한 것이 첫째 원인이다. 지금까지 해온 정치 운동은 모두 일본인을 적대시 하는 운동뿐이었다. 이런 종류의 운동은 해외에서나 할 수 있는 일이고, 조선 내에서는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일대 정치적 결사를 조직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주장이다.

- 이광수, 『민족적 경륜』 -

- ① 신간회가 조직되었다.
- ② 조선사 편수회가 조직되었다.
- ③ 실력 양성 운동이 전개되었다.
- ④ 해외에서 독립운동기지가 건설되었다.

【문 9】 조선 정부가 다음과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실시한 것은?

무릇 백성의 근심은 재해를 살피는 것이 밝지 않고 등분을 정하는 것이 공평하지 않은데 있습니다. 감사가 수령을 뽑아 보내어 답습하게 하면 수령은 길만 따라가서 위관에게 말기고 위관은 서리에게 맡깁니다. 서리는 산 넘고 물 건너는 험한 길을 꺼려서 평탄한 길로만 다닙니다. 음식 접대를 받고 뇌물을 기대합니다. 그러므로 힘 있는 자에게는 곡식이 여물어도 재해를 입는 것으로 하고, 가난한 자에게는 재해를 입어도 여문 것이라 합니다. 수령은 많이 거두어들이는 데에 힘쓰므로 흉년이 들어도 흉년이 아니라고 하고 곡식이 조금만 잘되어도 아주 잘 되었다고 하여 그 등급을 높입니다. 애달픈 백성들은 어디에 호소하겠습니까

- 『중종실록』 -

- ① 토지 1결당 4두로 조세 부담을 고정하여 거두었다.
- ② 수조권자가 직접 농민에게 세금을 거두도록 하였다.
- ③ 공인을 통해 관청에서 필요한 물품을 납부하도록 하였다.
- ④ 토지의 비옥도에 따라 등급을 나누는 전분 6등법을 만들었다.

【문10】 다음 자료와 관련하여 당시 농촌 사회의 모습을 추론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농민이 밭에 심는 것은 곡물만이 아니다. 모시, 오이, 배추, 도라지 등의 농사도 잘 지으면 그 이익이 헤아릴 수 없이 크다. 도회지 주변에는 파밭, 마늘밭, 배추밭, 오이밭 등이 많다. 특히 서도 지방의 담배밭, 북도 지방의 삼밭, 한산의 모시밭, 전주의 생강밭, 강진의 고구마밭, 황주의 지황밭에서의 수확은 모두 상상등전(上上等田)의 논에서 나는 수확보다 그 이익이 10배에 이른다.

- 『경세유표』 -

- ① 부농층의 성장으로 관권이 약화되었다.
- ② 소작료가 도조법 방식으로 변화되었다.
- ③ 토지에서 밀려난 임노동자가 출현하였다.
- ④ 지주와 전호가 경제적 관계로 바뀌어 갔다.

【문11】 다음은 고대 국가의 통치 조직을 정리한 것이다. ㉠ ~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구 분	고구려	백제	신라	통일 신라
최고 관직	㉠	상좌평	상대등	시중
지방 행정 조직	5부	5방	㉡	9주
특수 행정 구역	3경	㉢	2소경	5소경
최고 회의 기구	제가 회의	정사암 회의	㉣	

- ① ㉠ - 정당상의 장관으로 국정을 총괄하였다.
- ② ㉡ - 지방 행정 조직은 군사 조직을 겸하였다.
- ③ ㉢ - 풍수지리설의 영향으로 지방 거점에 설치하였다.
- ④ ㉣ - 임시 기구로 법 제정이나 시행 규정을 다루었다.

【문12】 다음은 고려의 대외 관계와 관련한 사료들이다. 순서대로 알맞게 나열한 것은?

(가) 개경은 기업이 이미 쇠하여 궁궐이 다 불타 남은 것이 없으나, 서경은 왕기가 크게 일어나고 있으니 주상께서 그 곳으로 옮기시어 수도로 삼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나) 과인은 이제 개경으로 환도하고자 하노라. 이제 출륙하여 백성을 도모하고자 하니, 모든 백관들은 과인의 뜻을 헤아리기 바라노라.
(다) 지금 요동을 정벌하는 것은 네 가지 불가한 점이 있습니다. 소로써 대를 거역하는 것이 첫째요, 여름에 군대를 동원하는 것이 그 둘째입니다.
(라) 우리나라는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이므로 국호를 고려라 부르며, 평양에 도읍한 것이다. 양국의 국경을 따진다면, 너희 나라 동경도 본래 우리나라 영토인데 어찌 침략이란 말이나?

- ① (가) - (나) - (라) - (다)
- ② (가) - (다) - (라) - (나)
- ③ (다) - (가) - (나) - (라)
- ④ (라) - (가) - (나) - (다)

【문13】 다음 사료에서 주장하는 바와 입장이 같은 것은?

군신, 부자, 부부, 붕우, 장유의 윤리는 하늘에서 얻은 것이고, 인간의 본성에 부여된 것으로서 천지를 통하는 만고불변의 이치입니다. 그리고 위에 존재하는 것으로서 도(道)가 됩니다. 이에 대해 배, 차, 군대, 농업, 기계 등 백성을 편하고 국가를 이롭게 하는 것들은 외형적인 것으로 기(器)가 됩니다. 신이 변혁을 꾀하고자 하는 것은 기이지 도가 아닙니다.

- ① 안으로는 탐학한 관리의 머리를 베고 밖으로는 횡포한 강적의 무리를 구축하자.
- ② 서양 오랑캐가 침범하는 데도 싸우지 않으면 화친하는 것이요, 화친을 주장하는 것은 나라를 팔아먹는 것이다.
- ③ 저들의 종교는 사악하다. 하지만 저들의 기술은 이롭다. 종교는 배척하되 기술을 본받는 것은 함께할 수 있다.
- ④ 강화가 한번 이루어지면 사악한 서적과 천주의 초상화가 함께 들어와 사악한 기운이 온 나라를 덮게 될 것이다.

【문14】 다음 중 고려의 가족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여성이 재가할 경우, 그 소생 자식의 사회적 진출에 차별을 두지 않았다.
- ㄴ. 아들이 없을 경우 양자를 들여 제사를 받들게 하였다.
- ㄷ. 사위가 처가의 호적에 입적하여 처가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 ㄹ. 혼인의 형태는 일부일처제가 일반적인 현상이었다.

- ① ㄱ, ㄷ, ㄹ
- ② ㄴ, ㄷ, ㄹ
- ③ ㄱ, ㄷ
- ④ ㄴ, ㄷ

【문15】 다음 글과 관련 있는 시대의 유물은 ?

기원전 8000년경에 후빙기가 시작되면서 기후는 차차 따뜻해졌지만, 기원전 5000년대 중반까지는 아직 기후가 추운 편이었다. 후빙기에 들어서면서 한반도의 자연 환경은 크게 변화하기 시작하여 해수면이 높아지고 동식물이 바뀌어 갔다. 그러나 기원전 5500년경부터 3000년경까지는 기후가 따뜻하여 소나무 숲에 상록 활엽수, 낙엽 활엽수가 첨가되어 현재와 비슷한 산림 형태를 이루게 되었다. 이 무렵의 한반도는 대략 지금과 비슷한 형태를 하고 있었으나, 서해안에서는 해수면이 현재보다 7미터쯤 낮아 사람들은 현재의 해안선보다 바다 쪽으로 더 나가 생활할 수 있었다.

- ① 거푸집
- ② 주먹도끼
- ③ 반달 돌칼
- ④ 빗살무늬 토기

【문16】 다음 각 조약과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가) 조선국은 부산 외에 두 곳의 항구를 개항하고 일본인이 와서 통상을 하도록 허가한다.
- (나) 조선국이 어느 때든지 어느 국가나 어느 나라 상인에게 본 조약에 의하여 부여되지 않는 어떤 특혜를 허가할 때는 이와 같은 특혜는 미합중국의 관민과 상인 및 공민에게도 무조건 균점된다.
- (다) 북경과 한성, 양화진에서 청과 조선 양국 상인의 무역을 허용한다. 지방관이 발행한 여행 허가증이 있으면 내지 행상도 할 수 있다.

- ① (가) - 부산에 이어 목포, 인천이 차례로 개항되었다.
- ② (나) - 강화도 조약과 달리 관세 조항이 들어 있었다.
- ③ (다) - 조선에서 청 상인과 일본 상인의 경쟁이 격화되었다.
- ④ (가), (나), (다) - 조선에 불리한 불평등 조약이었다.

【문17】 다음 성명서가 발표된 직접적 배경을 이해하기 위한 사료로 적절한 것은?

...한국이 있어야 한국 사람이 있고, 한국 사람이 있고야 민주주의도 공산주의도 또 무슨 단체도 있을 수 있는 것이다. ...내가 불초하나 일생을 독립 운동에 희생하였다. 내 나이가 이제 73세인바 이제 새삼스럽게 재물을 탐내며 명예를 탐낼 것이냐? 더구나 외국 군정 하에 있는 정권을 탐낼 것이냐? 내가 대한민국 임시 정부를 지켜온 것도 다 조국의 독립과 민족의 해방을 위하는 것뿐이다. 나의 단일한 염원은 3천만 동포와 손을 잡고 통일된 조국의 달성을 위하여 공동 분투하는 것뿐이다. 이 육신을 조국이 수요(需要)로 한다면 당장에라도 제단에 바치겠다...

- 『삼천만 동포에게 읊고함』 -

- ① 북위 38도선 이남의 조선 영토와 조선 인민에 대한 통치의 모든 권한은 당분간 본관 권한 하에 시행한다.
- ② 우리는 남방만이라도 임시 정부 혹은 위원회 같은 것을 조직하여 38 이북에서 소련이 철퇴하도록 세계 공론에 호소하여야 할 것이다.
- ③ 공동 위원회는 최고 5년 기간의 4개국 통치 협약을 작성하는데 공동으로 참작할 수 있는 제안을 조선 임시 정부와 협의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지난 2월 결의에서 유엔 소총회가 표명한 견해에 따라 위원단이 접근 가능한 한국 지역에서 선거 실시를 감시하며 동선거는 5월 10일 이전에 실시한다.

【문18】 다음 법령의 시행 결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제4조 : 토지 소유자는 조선 총독이 정하는 기간 내에 주소·씨명, 명칭 및 소유지의 소재, 지목, 자번호(字番號), 사표(四標), 등급, 지적, 결수(結數)를 임시 토지 조사 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단, 국유지는 보관 관청이 임시 토지 조사 국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보기>

- ㄱ. 조선인 지주 계급이 몰락하였다.
- ㄴ. 동양척식주식회사가 설립되었다.
- ㄷ. 경작권 등 소작농민의 권리가 부정되었다.
- ㄹ. 공유지에 대한 농민의 입회권이 부정되었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ㄷ, ㄹ

【문19】 다음과 같은 조선 교육령이 발표된 때와 가장 가까운 시기에 시행한 일제의 정책은?

- 제1조 소학교는 국민 도덕의 함양과 보통의 지능을 갖게 함으로써 충량한 황국 신민을 육성하는데 있다.
- 제13조 심상 소학교 교과목은 수신, 국어(일어), 산술, 국사, 지리, 이과, 직업, 도화이다. 조선어는 수의(隨意) 선택 과목으로 한다.

- ① 토지 조사 사업을 실시하여 소작농들의 경작권을 박탈하였다.
- ② 관세 철폐령을 내려 일본 상품의 조선 진출의 길을 확대하였다.
- ③ 한국인의 전시 동원을 위한 국가 총동원령을 발표하였다.
- ④ 징병제를 실시하여 20만여 명의 조선 청년들을 징집하였다.

【문20】 아래의 여러 정책들과 그 정치적 목적이 가장 유사한 사실은?

- 신문왕 : 문무관리에겐 관료전을 지급하고 녹읍을 폐지하였다.
- 광 중 : 과거제도를 시행하고 관리의 공복을 제정하였다.
- 태 중 : 6조 직제제를 채택하고 호패법을 실시하였다.

- ① 중국에서 유행한 풍수지리설을 수용하였다.
- ② 집사부 시중보다 상대등의 권력을 강화하였다.
- ③ 향약과 사창제를 실시하고 서원을 설립하였다.
- ④ 장용영을 설치하고 규장각을 확대 개편하였다.

【문21】 다음 ㉠ ~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사람들은 훈구 세력과 대립할 때는 단결하였으나, ㉡ 훈구 세력이 무너진 직후 자체 분열하여 봉당이 형성되고 봉당 간에 치열한 정권 다툼이 벌어지게 되었다. 처음에는 상대 봉당을 소인당으로, 자기 봉당을 군자당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선배 사람이 물러간 뒤에는 서로 군자당이라 하며 ㉢ 봉당 간의 견제와 협력을 바탕으로 하는 봉당 정치를 전개하였다. 이어 ㉣ 공론이 중시되는 정국이 되면서 상대 세력을 견제하고 자기 세력을 옹호하면서 3사 연관과 이조 전랑의 정치적 비중이 높아졌다.

<보기>

- (가) ㉠ - 사화가 발생하였다.
- (나) ㉡ - 노론과 소론으로 나뉘었다.
- (다) ㉢ - 경신환국으로 상호 공존이 가능하였다.
- (라) ㉣ - 공론은 재야의 산림이 주도하였다.

- ① (가), (나) ② (가), (라)
- ③ (나), (다) ④ (나), (라)

【문22】 다음과 같은 남북한의 공동 성명 직후 나타난 상황은?

첫째, 통일은 외세에 의존하거나 외세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자주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둘째, 통일은 상대방을 반대하는 무력 행사에 의거하지 않고 평화적 방법으로 실현하여야 한다.
셋째, 사상과 이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우선 하나의 민족으로서 민족적 대단결을 도모하여야 한다.

- ① 남한과 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하고 대화 및 교류를 늘렸다.
- ② 북한에서는 국가 주석에게 절대적 지위를 부여하는 사회주의 헌법을 만들었다.
- ③ 김일성의 갑작스러운 죽음과 뒤이은 조문 파동으로 남북관계가 다시 차가워졌다.
- ④ 북한에서는 서방 사회에 대한 개방과 교역 확대 등의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였다.

【문23】 다음 기록과 관련하여 임금의 명에 따라 새로이 개수된 역사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임금이 말하기를, “... 고려 실록에 기록되어 있는 천변과 지괴를 정사(正史)에 기록하지 않은 것은, 전례에 의하여 다시 첨가하여 기록하지 말고, 또 그 군왕의 시호는 아울러 실록에 의하여 태조 신성왕, 혜종 의공왕이라 하고, 묘호와 시호도 그 사실을 인멸하지 말 것이며, 그 태후, 태자와 관제(官制)도 또한 모름지기 고치지 말고, 오직 대사전하(大赦天下)라고 한 곳에는 천하 두 글자만 고칠 것이요, 또한 천하를 경내로 고칠 필요는 없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 『조선왕조실록, 세종5년』 -

- ① 고조선부터 고려 말까지의 통사였다.
- ② 고려의 역사를 기전체로 서술하였다.
- ③ 박상의 동국사략의 역사관을 극복하였다.
- ④ 이제현이 성리학적 사관에 입각하여 편찬하였다.

【문24】 다음 선언과 관련한 민주주의 운동의 성과는?

오늘 우리는 전 세계 이목이 주시하는 가운데 40년 독재 정치를 청산하고 희망찬 민주 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거보를 전 국민과 함께 내딛는다. 국가의 미래요 소망인 꽃다운 젊은이를 야만적인 고문으로 죽여 놓고 그것도 모자라서 국민을 속이려 했던 현 정권에게 국민의 분노가 무엇인지 분명히 보여 주고, 국민적 여망인 개헌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4.13호헌 조치를 철회시키기 위한 민주 장정을 시작한다.

- ① 강압적 유신 체제의 종말을 맞이하였다.
- ② 내각 책임제와 국회의 양원제가 실시되었다.
- ③ 5년 단임의 대통령 직선제 개헌이 이루어졌다.
- ④ 최초로 평화적 여야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다.

【문25】 다음 글에 나타난 발해사에 대한 인식을 반박하기 위한 적절한 활동을 <보기> 에서 고른 것은?

속말 말갈은 당나라 초기에 이미 당에 귀속되었다. 7세기 말엽에 속말 말갈의 수령 대조영은 여러 종족을 통일하고 정권을 세웠다. 713년에 당 현종이 대조영을 발해군왕으로 책봉하고 발해 도독부 도독에 임명하였다. 이때부터 속말 말갈이 수립한 정권을 발해라고 이름하게 되었다.

- 82년 판 중국 초급중학교 교과서, 『중국력사1』, 21쪽 -

<보기>

- ㄱ. 발해가 중앙 관제로 3성 6부를 두게 된 과정을 조사한다.
- ㄴ. 발해의 촌락에서 주민의 다수를 차지했던 종족을 알아본다.
- ㄷ. 발해가 일본에 보낸 외교 문서에 고구려 왕을 칭한 이유를 살펴본다.
- ㄹ. 발해가 멸망한 후 고려가 발해 유민을 적극 받아들인 사실의 의미를 파악한다.

- ① ㄱ, ㄷ ② ㄴ, ㄷ
- ③ ㄴ, ㄹ ④ ㄷ, ㄹ

【형 어 25문】

【문 1】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에 함축된 뜻은?

It was in the spring of his thirty-fifth year that father married my mother, then a country school teacher, and in the following spring I came crying into the world. Something happened to the two people. They became ambitious. The American passion for getting up in the world took possession of them. It may have been that mother was responsible. Being a school teacher, she had no doubt read books and magazines. She had, I suppose, read of Garfield, Lincoln, and other Americans rose from poverty to fame and greatness and as I lay beside she may have dreamed that I would some day rule men and cities.

- ① 위대한 어머니에 대한 나의 존경심
- ② 나의 출세에 대한 어머니의 야심
- ③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의 깊은 사랑
- ④ 행복하고 평화로운 나의 어린시절

【문 2】 다음 글의 문맥상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야 할 가장 적절한 곳은?

But nature has solved this problem for the flounder.

The flounder is a kind of flatfish. The odd thing about this fish is that both its eyes are on the same side of its head. (①) Flounder are not born that way, though. When a flounder hatched, it looks like any other fish. As it grows, however, its body becomes flattened. (②) One side of the fish is white and the other is a sandy color. The flounder lies on its white side on the ocean floor. Its sandy-colored side faces up. (③) This makes the flounder blend in with the sand, so it can't be easily seen. For any other fish, this would cause a problem. One eye would be looking right into the sand. (④) As the fish grows, the eye on the bottom moves to the upper side.

【문 3】 다음 글을 읽고 아래 질문의 답을 고르시오.

The common plant starch—found in flour, cereal grains and potatoes—is built of glucose. Starch can be split in several ways and eventually yields glucose. Digestion is one such way. After digestion takes place the glucose goes into the blood and is burned. Some glucose may not be burned. The liver takes it and converts it to glycogen. The body then stores this glycogen until the body is hungry, at which time it is digested again.

* When is glycogen used by the body?

- ① After it has been split.
- ② Shortly after being burned.
- ③ Once the body has stored it.
- ④ When the body needs energy.

【문 4】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Hibernation of bears presents several wonders to us. Although they are mammals, their life is a repetition of winter sleep and a preparation period unlike humans. Basically, the bear stocks up energy before winter and expends it during hibernation. In the process, the bear's body goes through drastic change. The preparation for hibernation starts as early as summer. Bears gain weight up to 15kg to 20kg per week by eating everything available. The energy is stored in the form of fat under the skin, which grows inches thick at its peak.

As winter approaches, the bear slows down its activity and eventually goes into a winter sleep in its cave. The bear sleeps until winter is over unless it gets disturbed. During the winter, the bear does not eat or drink for almost 100 days, and it loses between 15% to 40% of its weight just by sleeping. Despite the tremendous change in the body, virtually every single bear survives this long starvation period. In late spring, when the food is in great supply again, the bear walks out from the cave and resumes its life.

- ① 곰은 겨울에 엄청난 양의 음식을 섭취한다.
- ② 다수의 곰이 겨울에 영양실조로 사망한다.
- ③ 곰은 늦은 겨울에 이미 잠에서 깨어난다.
- ④ 곰의 겨울잠 준비는 여름부터 시작된다.

【문 5】 다음 글의 밑줄 친 ①~④ 중 글의 전체 흐름과 관계 없는 문장은?

Many experts think that the artists in prehistoric times believed they captured the animal's soul when they painted it. ①This could be why the images are so lifelike. ②According to their belief, if the artists captured an animal's true likeness, they would be sure to capture the real thing during the hunt. ③Prehistoric men hunted bulls, bison and mammoths for their survival. ④Whatever the paintings meant, surely no one would have crawled so deep into these caves to paint had the pictures not had a special meaning. The dark caves were sacred places for prehistoric people, and this art was part of their beliefs.

【문 6】 다음 문장의 내용상 부분에 가장 적절한 말은?

The candidate vowed to _____ public schools with new textbooks and cutbacks in taxes but failed to act on either promise once he was elected.

- ① purchase ② sell
③ address ④ provide

【문 7】 다음 글의 _____ 부분에 들어갈 어법에 맞는 표현은?

Although _____ instant critical acclaim in 1952, he never completed a second novel, publishing many short works instead.

- ① *Invisible Man* was the first novel by Ralph Ellison received
- ② first received by Ralph Ellison, the novel *Invisible Man* was
- ③ Ralph Ellison's first novel, *Invisible Man*, received
- ④ Ralph Ellison's first novel, *Invisible Man*, was received

【문 8】 다음 글의 밑줄 친 ① ~ ④ 중 어법상 잘못된 것은?

Teach your teen that the family phone ①is for the whole family. If your child talks on the family's telephone excessively, tell him he can talk for 15 minutes, but then ②he must stay off the phone for at least an equal amount of time. This not only frees up the line so that other family members can make and receive calls, ③but teaching your teen moderation and discipline. Or if you are not open to the idea, allow your talkative teen his own phone ④that he pays for with his allowance or a part-time jobs.

【문 9】 다음 글의 내용을 가장 잘 표현한 속담은?

Mr. Jones, the owner of a small company, wanted to bring his nephew Carl, into the business. At first he sent Carl out on the road selling, but he didn't make many sales. Then he tried Carl in the manufacturing department, but Carl was too thorough and took too much time. Then he tried Carl in human resources, but Carl was too kind and the other employees took advantage of him. Finally, Mr. Jones put Carl in customer relations, and he was wonderful! He was kind to all who called, and made everyone happy. The customers were pleased and spread the word to all their friends about Mr. Jones' great company.

- ① Where there is a will, there is a way.
- ② Every man has his own trade.
- ③ One man's music is another man's noise.
- ④ Everybody's business is nobody's business.

【문 10】 다음 글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고자 한다. 빈 칸 (A)와 (B)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In 1960, presidential candidates Richard M. Nixon and John F. Kennedy agreed to a series of debates, which were broadcast simultaneously on television and radio. According to surveys, most radio listeners felt that Nixon had won the debates, while television viewers picked the younger, more photogenic Kennedy. Kennedy went on to win the general election that fall. Television coverage was also influential during the Vietnam War. By the mid-1960s, major networks were broadcasting daily images of the war into virtually every home in the United States. For many viewers, the horrors they saw on television were more significant than the optimistic reports of impending victory issued by government officials and repeated in print accounts.

⇒ In the 1960s in the United States, (A)_____ had a more profound effect on some (B)_____ issues than any other media.

- | (A) | (B) |
|--------------|------------|
| ① television | political |
| ② radio | economical |
| ③ newspapers | political |
| ④ television | economical |

【문 11】 (A), (B), (C)의 각 괄호 안에서 문맥에 맞는 낱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School uniforms are becoming more and more popular. That's no surprise, because they offer many benefits. They instantly end the powerful social sorting and labeling that come from clothing. If all students are dressed in the same way, they will not be (A)(**distracted / contracted**) by fashion competition. Some students will also not be excluded or laughed at because they wear the "wrong" clothes. Some people (B)(**object / subject**) to the "regimentation" of school uniforms, but they do not realize that students already accept a kind of regimentation - wanting to look just like their friends. The difference is that the clothing students choose for themselves creates social barrier; school uniform (C)(**wear / tear**) those barriers down.

- | (A) | (B) | (C) |
|--------------|-------------|------|
| ① contracted | — object — | tear |
| ② contracted | — subject — | tear |
| ③ distracted | — subject — | wear |
| ④ distracted | — object — | tear |

【문12】 다음 글을 아래와 같이 요약할 때 _____ 부분에 가장 적절한 말은?

For the normal emotional and physical development of infants, sensory and perceptual stimulation is necessary. Healthy babies experience this stimulation while in contact with the mother or other adults who feed, diaper, or wash the infant. However, infants who are born prematurely or are sick miss these experiences during the early weeks of their lives when they live in incubators, an artificial environment devoid of normal stimuli. These babies tend to become listless and seem uninterested in their surroundings. However, when they are stimulated by being handled and spoken to and by being provided with bright objects such as hanging mobiles or pictures, they began to respond by smiling, becoming more active physically, and gaining weight more rapidly.

⇒ According to the passage, premature infants cared for in incubators, when compared with full-term infants, are likely to _____.

- ① gain weight more rapidly
- ② receive more natural stimulation
- ③ respond more to bright objects
- ④ be less active physically

【문13】 다음 글 바로 앞에 올 수 있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You can see this in the way Americans treat their children. Even very young children are given opportunities to make their own choices and express their opinions. A parent will ask a one-year-old child what color balloon he or she wants, which candy bar he or she would prefer, or whether he or she wants to sit next to mommy or daddy. The child's preference will normally be accepted. Through this process, Americans come to consider themselves as equal beings with the right to have their own individual opinions and decisions respected. At the same time, they are also taught to respect the opinions and decisions of others.

- ① 개인의 의사가 존중되는 미국 사회의 특성
- ② 미국 사회 특유의 자녀 교육 방법
- ③ 미국 사회에 있어서 부모의 역할의 중요성
- ④ 다수결 원칙에 입각한 의사 결정의 필요성

【문14】 다음 글을 읽고 아래 질문의 답을 고르시오.

Dear Ms. Larson,

Thank you for inquiry of 12 September asking for the latest edition of our catalogue. We are pleased to enclose our latest brochure. Purchases can be made online by visiting our website at mortmonbros.com. We would also like to inform you that we are having a special sale on HP printers all throughout the month and have already included in this mailing an order sheet. Orders can be filled out on paper and sent by post or filled in on our website and submitted electrically. The phone ordering method will take three extra days for shopping but no additional costs will be attached. Our company policy is that all first time customers receive free shipping and handling for their first three months for business, so the new printers would have no extra costs.

We look forward to welcoming you as our customer.

Your sincerely,
John Mortmon
Marketing Director of Mortmon Brothers

- * What is the benefit for the first time customers?
- ① They win a free printer from the company.
 - ② They get free delivery for a few months.
 - ③ They can submit orders through the internet.
 - ④ They can receive a brochure listing new items.

【문15】 빈 칸 (A), (B)에 들어갈 단어로 가장 적절한 것은?

When you want to remind yourself to do something, link that activity to another event that you know will take place. Say you're walking to work and suddenly you realize that your books are (A) _____ at the library tomorrow. Switch your watch from your left to your right wrist. Every time you look at your watch it becomes a (B) _____ that you were supposed to remember something. If you empty your pockets every night, put an unusual item in your pocket to remind yourself to do something before you go to bed. To remember to call your sister for her birthday, pick an object from the kitchen - a fork, perhaps - and put it in your pocket.

- | | (A) | | (B) |
|---|-------|---|----------|
| ① | due | — | reminder |
| ② | due | — | recliner |
| ③ | ready | — | reminder |
| ④ | ready | — | recliner |

【문16】 다음 문장의 밑줄 친 단어의 의미를 아래에 주어진 사전 뜻풀이 가운데에서 고를 때 가장 적절한 것은?

* Ignorance breeds prejudice.

breed v.

1. to have sex and produce young : *Many animals breed only at certain times of the year.*

2. to keep animals or plants in order to produce young ones in a controlled way : *The rabbits are bred for their long coats.*

3. to be the cause of something : *Nothing breeds success like success.*

4. to educate somebody in a particular way as they are growing up : *Fear of failure was bred into him at an early age.*

- ① 1.

② 2.

③ 3.

④ 4.

【문17】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Personal qualities generally have either positive or negative connotations. Our attitudes toward such personal qualities are partly personal, partly social, and partly cultural. Some people also feel that gender plays a role, with some qualities being more positively valued by women than by men and vice versa. Such attitudes are not always static, and they can change with changing economic and social circumstances. In some places, during the 1970s, ambition was seen to be bad, and then, during the 1980s, it was seen to be good. During the harsh economic times of the 1990s, a high value was placed on generosity and compassion.

- ① How Personal Qualities Form

② Changeable Standards of Value on Personal Qualities

③ The Meaning of Personal Qualities

④ Why Some Personal Qualities Have Positive Connotations

【문18】 다음 글의 문맥상 밑줄 친 단어의 의미로 가장 가까운 것은?

The time it takes a planet to make one orbit is related to its proximity to the sun.

- ① closeness to

② attachment to

③ variance from

④ reflection from

【문19】 다음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Recently, scientists have discovered that ancient Egyptians mummified animals. Some of the animals found in tombs were pets such as cats, dogs, and rabbits. Scientists believe that animals were mummified using the same technique as for humans. Apparently, the early Egyptians had many household pets and were quite fond of them. They believed their pets would live on into the afterlife to protect and comfort their masters. In addition, other animals have also been discovered. In other tombs, mummified bulls and crocodiles were found. For the ancient Egyptians, these animals were sacred and were the living spirits of gods. The Egyptians took good care of them while they were alive, and when they died, they buried them like kings.

- ① sacred animal tombs in ancient Egypt

② animal worship in ancient Egyptian funerals

③ the relationship between humans and animals

④ the reasons for animal mummification in ancient Egypt

【문20】 다음 글의 필자가 느끼는 심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I work at home for my children’s sake!” I repeat this to myself until maybe I can believe it. Too often lately I feel like the worst parent on the planet. As a freelance writer, I make my own hours and can work at home with my kids. A good deal, right? Not always. Some days I take four-year-old Hewson to the park. The older kids are at school, I’m staring at a deadline, but I’m eaten up with guilt because I’m not spending time with him. Then I think, Hey, I’m my own boss! We can go to the park! I can work while he plays – the best of both worlds. I grab my cell phone and my laptop, and pull into the park, thinking, Yes! You can have it all! The next thing I know, I’m sitting on a park bench with my laptop balanced on my knees while other mothers keep an eye on my son.

- ① excited

② bored

③ lonely

④ guilty

【문21】 다음 글의 흐름에 맞게 ()에 적합한 연결어는?

The scientists are convinced that they, as scientists, possess a number of very admirable human qualities, such as accuracy, observation, reasoning power, intellectual curiosity, tolerance and even humility. (), they suppose that these qualities can be imparted to other people, to a certain extent, by teaching them science.

- ① However ② Furthermore
- ③ Contrarily ④ Nevertheless

【문22】 다음 문장과 의미상 가장 가까운 것은?

Taking notes, even incomplete ones is usually more efficient than relying on one's memory.

- ① It is usually more efficient to take incomplete notes than to rely on one's memory.
- ② Because notes are usually incomplete, it is more efficient to rely on one's memory.
- ③ Taking incomplete notes is usually less efficient than relying on one's memory.
- ④ One's memory is usually more efficient than incomplete notes.

【문23】 (A), (B), (C)에 들어 갈 어법에 맞는 표현을 골라 짝 지은 것은?

In some areas, the use of English in schools and in the media has contributed (A)(to / for) the decline of minority languages. There (B)(were / have been) about 69,000 speakers of Gaelic in Scotland in 1991, according to that year's census. The language is still used in some schools but speakers have limited legal rights. It is not used in courts, and (C)(plays / playing) no part in the national government.

- | | (A) | (B) | (C) |
|-------|-----|-----------|-----------|
| ① to | — | have been | — plays |
| ② to | — | were | — plays |
| ③ for | — | were | — playing |
| ④ for | — | have been | — playing |

【문24】 다음 글에서 “cloning”에 대한 필자의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People seem to forget that nature has been “cloning” since the beginning of time. Identical twins are exactly the same cell-split into two. Despite this, they are different human beings with different “souls”. Similarly, through technology we may create a being with identical attributes but cannot clone a soul. If, through cloning, we can eliminate many genetic disorders, then surely this should be welcomed as a wonderful opportunity. Though perfected, there may still be risks, as there are in choosing to vaccinate your child. But the potential benefits may far outweigh the risks. How can we allow ourselves and our children to suffer when there could be a solution?

- ① neutral ② critical
- ③ supportive ④ concerned

【문25】 다음 글의 빈 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The second great force behind immigration has been _____. America has always been a refuge from tyranny. As a nation conceived in liberty, it has held out to the world the promise of respect for human rights. Every time a revolution has failed in Europe, every time a nation has succumbed to tyranny, men and women who love freedom have assembled their families and their belongings and set sail across the sea.

- ① political oppression
- ② economic factor
- ③ flight from poverty
- ④ the search for freedom of worship

2008년 3월 23일 시행
법원 9급 공개경쟁채용 제1·2차시험 【법원사무직렬】
 (제 2 교시)

문 제 책 형			
①	시험과목	민 법(25문) 형 법(25문)	민사소송법(25문) 형사소송법(25문)

응시자 준수사항

1. 문제책을 받더라도 시험시작 시간까지 문제내용을 보아서는 안됩니다.
2. 문제책을 받는 즉시 과목편철 순서, 문제누락 여부, 인쇄상태 이상 유무 등을 확인한 후 답안지의 문제책형란에 본인의 책형을 표기합니다.
3. 시험이 시작되면 문제를 주의 깊게 읽은 후 문항의 취지에 가장 적합한 하나의 정답만을 고르며, 문제내용에 관한 질문은 받지 않습니다.
4. 시험시간 종료 후 문제책을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 시험시간이 종료되기 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문제책을 시험장 밖으로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공 지 사 항

공개되는 정답가안에 이의가 있는 응시자는 대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를 통하여 아래와 같이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 아 래 -

1. **정답가안 공개** : 2008. 3. 24.(월) 12:00 이후
 [대법원 홈페이지/정보광장/시험정보/시험자료실]에 게시
 2. **이의제기**
 기간 : 2008. 3. 24.(월) 12:00 ~ 2008. 3. 26.(수) 17:00
 방법 : [대법원 홈페이지/정보광장/시험정보/정답이의제기]에 게시
 3. **최종정답 공개** : 2008. 4. 4.(금) 12:00 이후
 [대법원 홈페이지/정보광장/시험정보/시험자료실]에 게시
- ※ 대법원 홈페이지 정답이의제기 전용게시판 이외의 방법에 의한 이의제기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법 원 행 정 처

【민 법 25문】

【문 1】 소멸시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판례에 의함)

- ① 면책적 채무인수는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인 채무승인에 해당한다.
- ② 시효완성 전에 채무의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는, 그 수액에 관하여 다툼이 없는 한 채무승인으로서의 효력이 있어 시효중단의 효과가 발생한다.
- ③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고소를 하여 가해자에 대하여 형사재판이 개시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손해배상 청구권에 관한 소멸시효는 중단된다.
- ④ 최고를 여러 번 거듭하다가 재판상청구를 한 경우에 시효중단의 효력은 항상 최초의 최고시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상청구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이로부터 소급하여 6월 이내에 한 최고시에 발생한다.

【문 2】 이혼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판례에 의함)

- ① 당사자들이 일시적으로나마 법률상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합의에 따라 협의이혼신고를 하였다면 이는 무효가 아니다.
- ② 상대방 배우자가 혼인의 파탄 이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데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하여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도 이혼청구권이 있다.
- ③ 협의이혼의사의 확인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재판상 이혼사유가 될 수 없다.
- ④ 재판상 이혼사유의 하나인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간통을 의미하는 것이다.

【문 3】 유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판례에 의함)

- ① 유언은 비록 법정 요건과 방식에 어긋나더라도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는 경우에는 효력이 있다.
- ②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및 비밀증서의 방식에 의한 유언이 객관적으로 가능한 경우에는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허용되지 않는다.
- ③ 공증업무를 취급하는 변호사가 반혼수상태로 병원에 입원중인 유언자에게 유언취지를 묻자 유언자가 고개를 끄덕거린 것만으로는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 ④ 피상속인이 생전행위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지정하더라도 이는 효력이 없으므로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의 의사에 구속되지 않는다.

【문 4】 다음 중 법인격 없는 사단이 될 수 없는 것은?
(판례에 의함)

- ① 아파트입주자단체 ② 자연부락
- ③ 교회 ④ 서울대학교

【문 5】 상속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아니한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공동상속인은 각자의 상속분에 응하여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 ③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상속재산은 그 공유로 한다.
- ④ 협의에 의한 상속재산의 분할은 공동상속인 일부의 동의에 의하여 성립할 수 있다.

【문 6】 권리능력 및 행위능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틀린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한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 ② 혼인한 미성년자가 협의상 이혼을 할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요하지 아니한다.
- ③ 금치산자가 사술로써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처럼 믿게 한 경우 그 행위를 취소하지 못한다.
- ④ 태아가 특정한 권리에 있어서 이미 태어난 것으로 보지만, 태아가 모체와 같이 사망하여 출생의 기회를 못 가진 경우에는 대리인을 통하여도 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문 7】 법률행위의 무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아니한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에도 추인에 의하여 무효인 법률행위가 유효로 될 수 있다.
- ② 당사자가 양친자관계를 창설할 의사로 친생자출생신고를 하고 거기에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모두 구비되어 있다면 입양의 효력이 발생한다.
- ③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구비하고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의욕하였으리라고 인정될 때에는 다른 법률행위로서 효력을 가진다.
- ④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하고, 그 무효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아니한다.

【문 8】 민법 제103조 소정의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판례에 의함)

- ① 소송에서 사실대로 증언하여 줄 것을 조건으로 어떠한 급부를 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급부의 다과를 불문하고 무효이다.
- ② 행정기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상대방을 궁지에 빠뜨린 다음 이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거액의 급부를 제공받기로 한 약정은 무효이다.
- ③ 양도소득세의 회피 및 투기의 목적으로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 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미등기인 채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하여 그것만으로도 그 매매계약이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로 된다고 할 수 없다.
- ④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2중매도할 것을 적극 권유하는 등 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이루어진 매매계약은 무효이다.

【문 9】가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판례에 의함)

- ① 가등기 권리자는 가등기만으로는 물권취득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 ②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경료되면 본등기에 의한 물권변동의 효력은 가등기한 때로 소급하여 발생한다.
- ③ 가등기권리자가 그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관은 그 가등기 후에 한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 ④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의무자가 그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등기를 경료하였더라도 이것만으로는 소유권이전등기의 무가 이행불능이 된다고 할 수 없다.

【문10】채권의 목적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아니한 것은?

- ① 금전으로 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것이라도 채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 ② 채권의 목적이 수개의 행위 중에서 선택에 좇아 확정될 경우에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선택권은 채권자에게 있다.
- ③ 특정물의 인도가 채권의 목적인 때에는 채무자는 그 물건을 인도하기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하여야 한다.
- ④ 채권의 목적을 종류로만 지정한 경우에 법률행위의 성질이나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품질을 정할 수 없는 때에는 채무자는 중등품질의 물건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문11】채무의 이행불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판례에 의함)

- ① 채무의 이행불능이라 함은 사회생활에 있어서의 경험법칙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볼 때 채권자가 채무자의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 ② 임차인의 임차물반환채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 임차인이 그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하려면 그 이행불능이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은 것이 아님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 ③ 임차인으로 하여금 목적물을 사용수익케 할 임대인의 의무는 임대인이 목적물의 소유권을 상실하는 경우에 이행불능이 된다.
- ④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산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이행불능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문12】민법상 공동소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아니한 것은?

- ① 공유자는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
- ② 공유물 보존행위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 ③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
- ④ 공유자가 그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인 없이 사망한 때에는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한다.

【문13】채권의 소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아니한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받을 수 없는 때에는 변제자는 채권자를 위하여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하여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다.
- ②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는 변제자가 선의이며 과실없는 때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 ③ 변제와 채권증서의 반환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 ④ 채무가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인 때에는 그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문14】청약과 승낙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상법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을 전제로 함)

- ① 청약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생기고, 일단 효력이 생긴 후에는 청약자가 이를 원칙적으로 철회하지 못한다.
- ② 청약자가 미리 정한 기간 내에 상대방이 이의를 하지 아니하면 승낙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뜻을 청약시에 미리 표시했다면 그 기간이 도과함으로써 계약이 성립한다.
- ③ 승낙자가 청약에 대하여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하여 승낙의 통지를 한 때에는 승낙이 성립하지 않는다.
- ④ 격지자 사이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한다.

【문15】임대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판례에 의함)

- ① 토지임차인의 차임연체 등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도 토지임차인은 토지임대인에 대하여 지상건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 ② 임차보증금반환채무는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그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때에 비로소 이행기에 도달한다.
- ③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 목적물이 멸도되지 않았다면 임차인은 보증금이 있음을 이유로 연체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 ④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임대차에서 임대차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 임차인은 약정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었음을 이유로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문16】저당권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 ①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선순위 저당권이 원인 없이 불법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부동산에 대한 다른 근저당권자에 의한 경매신청에 의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고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어 매각대금이 완납되었다면 소멸한 근저당권의 말소회복등기를 구할 수 없다.
- ② 채권의 일부를 피담보채권으로 할 수 있고, 여러 개의 채권을 합해 하나의 피담보채권으로 할 수 있다.
- ③ 저당권은 당사자의 합의와 등기에 의하여 성립하지만, 예외적으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성립하는 경우가 있다.
- ④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범위에는 저당물의 보존 비용과 저당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도 포함된다.

【문17】 채권자대위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판례에 의함)

- ① 채무자가 이미 자신의 권리를 행사한 경우에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위 권리를 대위행사할 수 없다.
- ②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등 특정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특정권리를 대위행사하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무자력은 대위행사의 요건이 아니다.
- ③ 채권자대위소송에 있어서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대위소송은 부적법하다.
- ④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문18】 채권양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판례에 의함)

- ① 채권양도의 통지는 양도인이 직접 채무자에게 하여야 하므로, 양수인이 양도인의 사자 또는 대리인으로서 채무자에게 양도 통지를 할 수 없다.
- ② 채권양도가 있기 전에 미리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 ③ 채권 양수인이 양도금지 특약의 존재를 알지 못한 데 대하여 중과실이 있는 경우, 채권양수인은 채권을 취득할 수 없다.
- ④ 채무자는 채권양도를 승락한 후에 취득한 양도인에 대한 채권으로서 양수인에 대하여 상계로서 대항하지 못한다.

【문19】 계약해제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은?

- ① 판례에 의하면, 채무자가 본래 급부하여야 할 것보다 과대하게 한 과대최고의 경우, 채무자가 본래의 채무를 급부하여도 채권자가 이를 수령하지 않을 것이 예상되는 때에는 최고로서의 효력이 없으므로, 계약해제도 효력이 없다.
- ② 판례에 의하면, 상당기간을 정하지 않고서 최고를 한 때에는 최고로서의 효력이 없다.
- ③ 일정한 시일에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정기행위의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않고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④ 판례에 의하면, 계약의 목적 달성에 주된 채무가 아니라 부수적 채무를 불이행한 데에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문20】 저당권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아니한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수개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동일한 부동산에 수개의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그 순위는 설정등기의 선후에 의한다.
- ②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의 소의 제기는 그 피담보채권의 재판상의 청구에 준하는 것으로서 피담보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을 생기게 한다.
- ③ 전세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자는 저당권자의 동의 없이도 전세권을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 ④ 저당권자는 목적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문21】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는 점유의 취득은?
(판례에 의함)

- ① 현실인도 ② 제3자에 대한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
- ③ 점유개정 ④ 간이인도

【문22】 유치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판례에 의함)

- ① 유치권의 대상인 부동산이 경매된 경우, 유치권자는 매수인에 대하여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
- ② 건물 임차인은 권리금반환청구권에 기하여 임차 건물에 관하여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
- ③ 유치권자가 유치물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목적물을 사용하는 것은 적법행위이므로 불법점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 ④ 물건의 인도를 청구하는 소송에 있어서 피고의 유치권 항변이 인용되는 경우에는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의 변제와 상환으로 그 물건의 인도를 명하여야 한다.

【문23】 사용자책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판례에 의함)

- ① 피용자가 사용자의 이익을 도모할 의사 없이 사리를 취하기 위하여 그 권한을 남용하여 한 행위라도 외형상 피용자의 직무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책임이 인정된다.
- ② 명의사용을 허가받은 사람이 업무수행을 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명의사용을 허가한 사람은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
- ③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사용자의 사무집행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피해자가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때에는 사용자책임이 부정된다.
- ④ 도급인이 수급인의 일의 진행 및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휘감독권을 유보한 경우에도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한 법률상의 사용자가 아니므로 수급인의 행위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문24】 등기를 요하지 않는 부동산물권취득에 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 ① 공유물분할청구에 기한 분할 판결은 그 판결이 확정된 때 등기 없이 물권변동이 발생한다.
- ②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판결이 확정된 때 등기 없이 물권변동이 생긴다.
- ③ 강제경매에 의한 부동산 소유권은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내면 등기 없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 ④ 자기의 노력과 재료를 들어 건물을 건축한 사람은 소유권보존등기와 관계없이 그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한다.

【문25】 취득시효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 ① 판례는 자기의 소유물에 대하여는 취득시효를 인정하지 않는다.
- ② 분필되지 않은 1필의 토지의 일부에 대하여도 취득시효가 인정된다.
- ③ 점유자가 자기만의 점유를 주장할지, 아니면 전 점유자의 점유까지 합산하여 주장할지는 선택할 수 있으나, 합산을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전 점유자의 임의의 시점을 선택할 수 없다.
- ④ 취득시효기간 만료 후 그 시효이익을 포기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문10】 다음은 청구의 변경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하지 못한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반드시 서면에 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 ② 청구취지를 확장하는 경우 첨부하여야 할 인지액은 청구취지를 확장하기 전과 확장한 후의 소송목적의 값을 비교한 차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 ③ 청구를 감축하는 경우에는 인지를 붙이지 않는다.
- ④ 소의 추가적 변경이 있는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은 소변경신청서 부분을 상대방에게 송달한 때가 아니라 소변경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한 때 발생한다.

【문11】 다음은 반소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 통설·판례에 의함)

- ① 반소는 소송계속 중에 피고가 그 소송절차를 이용하여 원고로 상대로 제기하는 소를 말하는 것으로서 1심 변론 종결전까지만 제기할 수 있다.
- ② 반소는 항변 등의 방어방법이 아니라 독립된 소이므로 이행의 소인 본소에 대하여 그 이행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반소도 허용된다.
- ③ 단독판사 사건인 본소 청구의 심리 중에 반소가 제기되어 합의부 사건이 된 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사건 전부를 합의부로 이송하여야 하며, 이 때 반소 제기로 인해 합의사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본소와 반소의 소송목적의 값을 합산한 값을 기준으로 한다.
- ④ 반소청구는 본소의 청구나 본소의 방어방법과 서로 관련이 있어야 하나, 반소 제기 후 본소가 취하되더라도 예비적 반소가 아닌 한 반소의 소송계속에는 영향이 없다.

【문12】 다음 중 민사소송법상 항변으로 볼 수 있는 것은?

- ① 원고가 돈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그런 적이 없다고 다투는 경우
- ② 원고가 돈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돈을 받기는 하였지만 물건을 팔고 받은 매매대금이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 ③ 원고가 돈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돈을 받기는 하였지만 모두 갚았다고 주장하는 경우
- ④ 원고가 돈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는 경우

【문13】 참가적효력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피참가인이 패소한 경우 참가인이 뒤에 피참가인에 대한 관계에서 판결의 내용이 부당하다고 주장할 수 없는 금반언의 구속력으로서 기판력과는 다른 보조참가의 특수한 효력이다.
- ② 참가적효력은 피참가인과 참가인 사이에만 미치고, 피참가인의 상대방과 참가인 사이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 ③ 기판력은 직권조사사항이지만, 참가적효력은 주장을 기다려 고려하여야 할 항변사항이다.
- ④ 참가적효력은 판결주문에 대해서만 미치고, 판결이유 중 패소 이유가 되었던 사실상·법률상의 판단에는 미치지 않는다.

【문14】 다음 중 소장과 답변서 심사결과 무변론판결의 대상이 되기에 적합한 사건은?

- ① 무변론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청구원인을 다투는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
- ② 원고의 청구원인 사실에 대하여 모두 자백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
- ③ 직권조사할 사항이 있는 경우
- ④ 소액사건의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사건

【문15】 소장 기재사항의 청구취지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 ①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성립원인 사실을 기재한 것이다.
- ② 소가 산정의 기준이 된다.
- ③ 사물관할과 상소이익의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 ④ 원고가 어떠한 내용과 종류의 판결을 구하는가를 밝히는 소의 결론부분이다.

【문16】 상고(上告)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은?

- ① 상고는 상고기간 내에 상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한다.
- ② 사실관계의 당부 판단에 대해서는 상고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 ③ 상고인이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상고심은 법률심으로서 사후심제가 원칙이다.

【문17】 재판상 자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문서의 진정성립에 관한 자백은 보조사실에 대한 자백이므로 그 자백의 취소는 간접사실에 관한 자백의 취소와 같이 문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한 당사자는 자유롭게 이를 철회할 수 있다고 한다.
- ② 선행자백(자발자백)이 상대방에 의하여 원용되기 전이나 이에 상응하는 일치된 진술이 없는 때에는 자유롭게 철회가 가능하다.
- ③ 자백은 변론이나 변론준비절차에서 소송행위로서 진술하여야 하므로, 소송 밖에서 한 자백이나 다른 소송에서 한 자백은 사실인정에 영향이 있을 뿐, 당연히 법원의 사실인정권을 배제하는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다.
- ④ 상대방 주장과 전부 일치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일치하는 부분에 한해 자백이 인정되므로 자백의 가분성 원칙이 인정된다.

【문18】 소송대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 ① 소송대리인의 권한은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 ② 소송대리인의 사실상 진술은 당사자가 이를 곧 취소하거나 경정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 ③ 여러 소송대리인이 있는 때에는 각자가 당사자를 대리하나, 당사자가 이와 다른 약정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소송대리인은 그 소송의 제3자에 불과하므로 그 소송의 증인이 될 자격이 있다.

【문19】 증인 조사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 ① 상대방의 이의 유무에 관계없이 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출석·증인에 갈음하여 증언할 사항을 적은 서면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② 서면에 의한 증언방식에 있어서 법원은 상대방의 이의가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증인에게 출석·증언하게 할 수 있다.
- ③ 제1심에서 공동소송인이었다면 항소심에서 공동소송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증인이 될 수 없다.
- ④ 증인에 대하여 전화, 팩스 등 간이한 방법을 이용하여 출석요구를 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와 같은 법률상의 제재를 가할 수 없다.

【문20】 당사자적격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이행의 소에 있어서 원고적격은 자기가 이행청구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자가 가지는 반면, 피고적격은 원고적격을 가지는 자에 의하여 이행의무자라고 주장된 자가 아니라 정당한 이행의무자로 인정된 자가 갖는다.
- ②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그 청구에 대해서 확인의 이익을 가지는 자가 원고적격을 가진다.
- ③ 형성의 소에 있어서는 보통 이를 인정하는 법규 자체에 원고 또는 피고로 될 사람을 명문의 규정으로 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에는 여기에서 정하여진 사람이 원고 또는 피고로서 적격을 가진다.
- ④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 있어서는 여러 명이 공동으로 원고가 되거나 피고가 되지 않으면 당사자적격 흠결로 부적법하게 된다.

【문21】 민사소송절차상 현행 민사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변론에 관한 원칙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것은?

- ① 직접심리주의 ② 쌍방심리주의
- ③ 구술심리주의 ④ 수시제출주의

【문22】 법률상의 추정을 사실 추정과 권리 추정으로 나눌 경우에 다음 중 사실 추정이 아닌 것은?

- ① 취득시효의 일정기간 계속 점유에 관하여 전후 양시의 점유로부터 전 기간 점유의 계속을 추정하는 것
- ② 귀속불명한 재산을 부부공유로 추정하는 것
- ③ 처가 혼인 중에 포태한 자를 부의 친생자로 추정하는 것
- ④ 일자의 기재가 없는 배서는 지급거절증서작성기간 경과 전에 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

【문23】 공동소송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 ① 통상공동소송의 경우에는 심리는 병합하여 행하여지지만 공동소송인 한 사람의 소송행위는 다른 공동소송인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② 필수적 공동소송의 경우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의 소송행위는 모두의 이익을 위하여서만 효력이 있다.
- ③ 필수적 공동소송의 경우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에 대한 상대방의 소송행위는 공동소송인 모두에게 효력이 미친다.
- ④ 유사필수적 공동소송의 경우 공동소송인 중 한 사람에게 소송요건의 흠이 있으면 소송 전부를 각하하여야 한다.

【문24】 청구의 병합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통상의 민사사건과 비송사건은 서로 병합이 허용되지 않는다.
- ② 단순병합의 경우 소가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병합된 청구의 가액을 합산함이 원칙이다.
- ③ 선택적 병합의 경우에 그 중 하나만을 받아들여 청구를 인용한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 판단하지 아니한 나머지 청구는 항소심으로 이심되지 아니한다.
- ④ 병합된 청구 중 어느 하나가 다른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이를 이송하여야 한다.

【문25】 다음 중 현행법상 허용될 수 없는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민법상 조합의 조합재산으로 매수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 전등기청구의 소가 계속 중, 누락된 조합원을 당사자로 추가하는 경우
- ② 원고가 공사도급계약상의 수급인을 그 계약서상의 명의인이라고 생각하여 그 명의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심리도중 변론과정에서 피고측 답변이나 증거를 통해 수급인이 다른 사람임을 확인하고 피고경정을 구하는 경우
- ③ 甲의 대리인 乙과 계약을 하였음을 이유로 甲에 대하여 당해 계약상의 청구를 하는 소송이 계속되는 중, 당시 乙에게 대리권이 없었을 경우를 대비하여 乙을 상대로 하는 무권대리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추가하는 경우
- ④ 주식회사를 피고로 하여야 하는데 잘못하여, 그 대표이사 개인을 피고로 하여 소를 제기하였다가 소송 계속 중 피고를 주식회사로 바꾸는 경우

【형법 25문】

【문 1】 결과적 가중범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결과적 가중범은 행위자가 행위시에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을 때에도 그 행위와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중한 죄로 벌한다는 취지이다.
- ② 강간피해자가 수치심에 비판하여 음독자살하였다면 강간치사죄가 성립한다.
- ③ 결과적 가중범이 성립하려면 적어도 기본범죄는 고의범이고 기수가 되어야 한다.
- ④ 기본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만 있고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가 없더라도 중한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다면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이 인정된다.

【문 2】 죄형법정주의와 관련하여 가장 적절치 못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형을 중전보다 가볍게 하는 내용으로 형벌법규를 개정하면서 그 부칙으로 개정 전의 범죄에 대하여는 중전의 형벌법규를 주급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더라도 형벌불소급 원칙이나 신법우선주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는 없다.
- ② 진행중인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특별법을 제정하여 소급적용하는 것은 허용된다.
- ③ 행위 당시의 판례에 의하여 처벌대상이 되지 않던 행위를 판례변경을 통하여 처벌하는 것은 허용된다.
- ④ 행위 당시에 규정이 없었음에도 재판시의 규정에 따라 보호관찰을 명하는 것은 소급효금지의 원칙에 반한다.

【문 3】 죄수 및 경합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절취한 예금통장과 인장을 이용하여 예금을 인출한 행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로서 별도의 사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 ② 절취한 자기앞수표를 음식대금으로 교부하고 거스름돈을 받아 현금을 취한 행위는 절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로서 별도의 사기죄가 되지 아니한다.
- ③ 절취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상품을 구입한 경우 신용카드의 부정사용행위는 새로운 범의의 침해이므로 절도죄와 별도로 실체적 경합이 된다.
- ④ 절도 범인이 체포를 면하려고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경우 준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의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문 4】 범죄의 성립과 처벌에 관하여 가장 옳은 설명은?

- ① 범죄의 성립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고, 처벌은 재판시의 법률에 의한다.
- ②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여도 구법에 의하여 처벌한다.
- ③ 범죄 후 제1심판결 선고 전에 법령의 개폐로 인하여 형이 폐지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26조 4호에 의하여 면소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 ④ 재판확정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여도 형의 집행에 영향이 없다.

【문 5】 집행유예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 ②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형을 병과할 경우에는 그 형의 일부에 대하여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 ④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할 수 있다.

【문 6】 경합범 등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있는 때에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한다. 이 경우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 ②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벌금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
- ③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 각 죄에 정한 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 이외의 동종의 형인 때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형기 또는 액수를 초과할 수 없다. 단 과료와 과료, 몰수와 몰수는 병과할 수 있다.
- ④ 경합범에 의한 판결의 선고를 받은 자가 경합범 중의 어떤 죄에 대하여 사면 또는 형의 집행이 면제된 때에는 다른 죄에 대하여 다시 형을 정한다.

【문 7】 미필적 고의에 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판례에 의함)

- ①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 ②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 ③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
- ④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미필적 고의의 부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피고인에게 있다.

【문 8】 강도죄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지나가는 택시를 잡아 칼로 위협하여 목적지까지 간 후 그냥 내린 경우 강도죄가 성립한다.
- ② 준강도의 미수와 기수는 절도의 미수·기수가 아니라 폭행·협박의 미수·기수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 ③ 절도가 절도행위의 기회계속중이라고 볼 수 있는 그 실행중 또는 실행직후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을 가한 때에는 준강도죄가 성립되고 이로써 상해를 입혔을 때는 강도상해죄가 성립된다.
- ④ 고속버스의 옆좌석에 앉은 사람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수를 권하여 잠들게 하고 고속도로 휴게소에 버스가 정차한 사이 그 사람의 가방을 가지고 도주하였다면 강도죄가 성립한다.

【문 9】 甲은 친구들과 함께 乙로부터 돈을 빼앗기로 공모한 다음 乙을 강제로 승용차에 태우고 가면서 乙을 때려 반항을 억압한 후 乙로부터 현금 30만 원이 들어 있는 가방을 빼앗고 乙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을 입혔다. 그 이후에도 甲은 약 15km를 더 주행하여 가다가 교통사고가 나는 바람에 乙에 대한 감금행위는 중단되었다. 甲의 죄책은? (판례에 의함)

- ① 강도상해죄
- ② 강도죄, 상해죄, 감금죄의 실체적 경합
- ③ 감금죄와 강도상해죄의 상상적 경합
- ④ 감금죄와 강도상해죄의 실체적 경합

【문 10】 甲은 기왕에 습득한 乙의 주민등록증을 이동전화기 대리점 직원에게 내보이고 “나는 乙의 아들인데 어머니 乙의 요청으로 대신 이동전화를 사러 왔다” 고 속이고 乙 명의로 이동전화 가입신청서를 작성 제출한 다음 이동전화기를 교부받았다. 甲의 죄책은? (판례에 의함)

- ① 포괄하여 사기죄
- ② 사기죄, 공문서부정행사죄
- ③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
- ④ 사기죄, 공문서부정행사죄, 사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

【문 11】 문서위조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판례에 의함)

- ① 실재하지 않는 허무인이나 사자(死者) 명의의 문서에 대하여는 사문서위조죄는 성립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다만 사자 명의의 문서라 할지라도 그 문서의 작성일자가 생존중의 일자인 때에는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 ② 사본을 다시 복사한 문서의 재사본도 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의 객체인 문서에 해당한다.
- ③ 사문서위조죄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가 성립한 후 사후에 피해자의 동의 또는 추인 등의 사정으로 문서에 기재된 대로 효과의 승인을 받거나,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범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 ④ 타인으로부터 문서작성을 위임받았으나 그 위임된 권한을 초월하여 내용을 기재함으로써 명의자의 의사에 반하는 사문서를 작성하였다면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한다.

【문 12】 주거침입의 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판례에 의함)

- ① 타인의 주거에 신체의 일부만 들어간 상태에서는 미수이고, 신체의 전부가 들어가야 기수가 된다.
- ② 거주자나 관리자와의 관계 등으로 평소 그 건조물에 출입이 허용된 사람이라 하더라도 주거에 들어간 행위가 거주자나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감행된 것이라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 ③ 임대차가 종료하였는데도 임차인이 계속 점유관리하면서 분쟁이 있는 건물에 소유자가 권리회복을 위하여 들어갔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 ④ 남편이 일시 부재중 간통의 목적하에 그 처의 승낙을 얻어 주거에 들어갔다면 주거침입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문 13】 직무유기죄 등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판례에 의함)

- ① 경찰관이 압수물을 범죄 혐의의 입증에 사용하도록 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압수자에게 돌려주어 증거인멸죄를 범한 경우에 별도로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가 성립한다.
- ② 경찰관이 방치된 오토바이가 있다는 신고를 받거나 순찰중 이를 발견하고 오토바이 상회 운영자에게 연락하여 오토바이를 수거해가도록 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경우, 직무유기죄에 해당한다.
- ③ 공무원이 어떠한 위법사실을 발견하고도 직무상 의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법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할 목적으로 허위공문서를 작성, 행한 경우에는 직무위배의 위법상태는 허위공문서작성 당시부터 그 속에 포함되는 것으로 작위범인 허위공문서작성, 동행사죄만이 성립하고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는 따로 성립하지 아니한다.
- ④ 직무유기죄는 객관적으로는 직무 또는 직장을 벗어나는 행위가 있고 주관적으로는 직무를 버린다는 의식이 있어야 성립하는 것이므로 태만, 착각 등으로 인하여 직무집행을 성실히 수행하지 못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직무유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문 14】 권리행사방해죄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판례에 의함)

- ① 렌트카회사의 공동대표이사 중 1인이 회사 보유 차량을 자신의 개인적인 채무담보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넘겨주었는데 다른 공동대표이사가 위 차량을 몰래 회수하도록 한 경우, 위 피해자의 점유는 권리행사방해죄의 보호대상인 점유에 해당한다.
- ② 형법 제323조의 권리행사방해죄와 관련하여,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한 물건이 자기의 물건이 아니라면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
- ③ 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의 타인의 점유와 관련하여 본권을 갖지 아니하는 절도범인의 점유도 여기에 해당한다.
- ④ 형법 제323조 소정의 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의 취거라 함은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그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자의 점유로부터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문15】 공갈죄 등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판례에 의함)

- ① 예금주인 현금카드 소유자를 협박하여 그 카드를 갈취한 다음 피해자의 승낙에 의하여 현금카드를 사용할 권한을 부여받아 이를 이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행위와 관련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피해자의 예금을 인출한 행위를 현금카드 갈취행위와 분리하여 따로 절도죄로 처단할 수는 없다.
- ②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적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 ③ 부동산에 대한 공갈죄는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 받은 때에 기수로 되어 그 범행이 완료되는 것이다.
- ④ 토지매도인이 그 매매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매수인을 상대로 하여 당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위 대금을 변제받지 못하면 위 소송을 취하지 아니하고 예고등기도 말소하지 않겠다는 취지를 알렸다고 하여 이를 지목하여 공갈행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문16】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판례에 의함)

- ① 야간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사람의 주거에 침입한 경우에는 주거에 침입한 단계에서 이미 형법 제330조에서 규정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라는 범죄행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 ② 출입문이 열려 있으면 안으로 들어가겠다는 의사 아래 출입문을 당겨보는 행위는 바로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을 침해할 객관적인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어 그것으로 주거침입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③ 야간에 아파트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칠 의도하여 아파트의 배란다 철제난간까지 올라가 유리창문을 열려고 시도한 경우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④ 피고인이 피해자 경영의 카페에서 야간에 아무도 없는 그 곳 내실에 침입하여 장식장 안에 들어 있던 정기적금통장 등을 꺼내 들고 카페로 나오던 중 발각되어 돌려 준 경우 절도의 미수에 그친 것이 아니라 야간주거침입절도의 기수이다.

【문17】 업무방해죄 등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판례에 의함)

- ① 형법 제314조 제1항 소정의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위계’라 함은 행위자의 행위목적 달성을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 ② 인터넷 자유게시판 등에 실체의 객관적인 사실을 게시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업무가 방해된다면 형법 제314조 제1항 소정의 ‘위계’에 해당한다.
- ③ 업무방해죄에 있어서 행위의 객체는 타인의 업무이고, 여기서 타인이라 함은 범인 이외의 자연인과 범인 및 법인격 없는 단체를 가리킨다.
- ④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업무란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의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의 일체를 의미하고, 그 업무가 주된 것이든 부수적인 것이든 가리지 아니한다.

【문18】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 등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판례에 의함)

- ① 가처분은 가처분 채무자에 대한 부작위 명령을 집행하는 것이므로 가처분의 채무자가 아닌 제3자가 그 부작위 명령을 위반한 행위는 그 가처분집행 표시의 효용을 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② 출입금지가처분은 그 성질상 가처분 채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건조물 등에 출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므로 비록 가처분결정이나 그 결정의 집행으로서 집행관이 실시한 고시에 그러한 취지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가처분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그 건조물 등에 출입하는 경우에는 출입금지가처분 표시의 효용을 해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 ③ 공무상표시무효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행위 당시에 강제처분의 표시가 현존할 필요는 없다.
- ④ 압류물을 집행관의 승인 없이 임의로 그 관할구역 밖으로 옮긴 경우에는 압류집행의 효용을 해하게 된다고 할 것이므로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가 성립한다.

【문19】 뇌물죄에 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판례에 의함)

- ① 뇌물을 요구하여 중죄자가 제공하는 돈을 받았는데 그 액수가 예상한 것보다 너무 많은 액수여서 후에 예상한 금액을 초과한 돈을 반환하였다면 반환한 부분에 대하여는 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뇌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② 자동차를 뇌물로 공여한 경우 자동차등록원부에 뇌물수수자가 그 소유자로 등록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자동차의 사실상 소유자로서 자동차에 대한 실질적인 사용 및 처분권한이 있다면 자동차 자체를 뇌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③ 뇌물죄에서 뇌물의 내용인 이익이라 함은 금전, 물품 기타의 재산적 이익뿐만 아니라 사람의 수요 욕망을 충족시키기에 족한 일체의 유형, 무형의 이익을 포함한다고 해석되고, 투기적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얻는 것도 이에 해당한다.
- ④ 뇌물죄에 있어서 금품을 수수한 장소가 공개된 장소이고, 금품을 수수한 공무원이 이를 부하직원들을 위하여 소비하였을 뿐 자신의 사리를 취한 바 없다 하더라도 그 뇌물성이 부인되지 않는다.

【문20】 다음 중 물수의 대상에 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판례에 의함)

- ① 대형할인매장에서 수회 상품을 절취하여 자신의 승용차에 싣고 간 경우, 위 승용차는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으로 보아 몰수할 수 있다.
- ② 형법 제48조 제1항의 ‘범인’에는 공범자가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소유물이 아닌 공범자의 소유물은 몰수할 수 없다.
- ③ 사행성 게임기는 기관과 본체가 서로 물리적으로 결합되어야만 비로소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기계로서, 당국으로부터 적법하게 등급심사를 받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본체를 포함한 그 전부가 범죄행위에 제공된 물건으로서 물수의 대상이 된다.
- ④ 물수는 반드시 압수되어 있는 물건에 대하여서만 하는 것이 아니므로, 몰수대상물건이 압수되어 있는가 하는 점 및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압수되었는가 하는 점은 물수의 요건이 아니다.

【문21】 다음 중 배임죄에 있어서 타인의 사무에 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판례에 의함)

- ① 미성년자와 친생자관계가 없으나 호적상 친모로 등재되어 있는 자가 미성년자의 상속재산 처분에 관여한 경우, 배임죄에 있어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 ②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계약이 행하여진 경우 당사자는 그 증여가 이행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이를 해제할 수 있으므로 증여자가 구두의 증여계약에 따라 수증자에 대하여 증여 목적물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의무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그 증여자는 수증자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 ③ 골프시설의 운영자가 일반회원들을 위한 회원의 날을 없애고, 일반회원들 중에서 주말예약에 대하여 우선권이 있는 특별회원을 모집함으로써 일반회원들의 주말예약권을 사실상 제한하거나 박탈하는 결과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골프시설의 운영자가 일반회원들의 골프회원권이라는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를 대행하거나 그 재산의 보전행위에 협력하는 지위에 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일반회원들에 대한 배임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 ④ 주식회사의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되며, 회사와 이사의 관계는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식회사의 이사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배임수재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문22】 다음 보행자 보호의무와 횡단보도 사고 등에 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판례에 의함)

- ① 보행신호등의 녹색등화가 점멸되고 있는 상태에서 횡단보도에 진입한 보행자가 보행신호등이 적색등화로 변경된 후 차량신호등의 녹색등화에 따라 진행하던 차량에 충격된 경우, 횡단보도상의 사고에 해당한다.
- ② 고속도로를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운전자가 상당한 거리에서 보행자의 무단횡단을 미리 예상할 수 있는 사정이 있었고, 그에 따라 즉시 감속하거나 급제동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면 보행자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자동차 운전자의 과실이 인정될 수 있다.
- ③ 차량의 운전자로서는 횡단보도의 신호가 적색인 상태에서 반대차선상에 정지하여 있는 차량의 뒤로 보행자가 건너오지 않을 것이라고 신뢰하는 것이 당연하고 그렇지 아니할 사태까지 예상하여 그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고 할 수 없다.
- ④ 보행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횡단보도를 진행하는 차량의 운전자가 인접한 교차로의 차량진행신호에 따라 진행하다 교통사고를 낸 경우,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보호의무 위반의 책임을 지게 된다.

【문23】 증거인멸죄 등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판례에 의함)

- ① 형법 제155조 제1항은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조문에서 말하는 ‘징계사건’이란 국가의 징계사건에 한정되고 사인 간의 징계사건은 포함되지 않는다.
- ② 자기의 형사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기 위하여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에 대하여는 증거인멸교사죄가 성립한다.
- ③ 피고인 자신이 직접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그 증거가 될 자료를 인멸하였다면, 그 행위가 동시에 다른 공범자의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증거인멸죄로 처벌할 수 없다.
- ④ 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은 형법 제155조 제1항에 규정된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위조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문24】 정당방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판례에 의함)

- ① 어떠한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되려면 그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하므로, 위법하지 않은 정당한 침해에 대한 정당방위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 ② 경찰관의 체포행위가 적법한 공무집행을 벗어나 불법하게 체포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더라도, 현행범이라면 그 체포를 면하려고 반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정당방위에 해당할 여지가 없다.
- ③ 검사가 참고인 조사를 받는 줄 알고 검찰청에 자진출석한 변호사사무실 사무장을 합리적 근거 없이 긴급체포하자 그 변호사가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위 검사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정당방위에 해당할 수 있다.
- ④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행위라고 볼 수 없다.

【문25】 다음 중 사기죄에 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판례에 의함)

- ① 부동산가압류결정을 받아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집행까지 마친 자가 그 가압류를 해제하면 소유자는 가압류의 부담이 없는 부동산을 소유하는 이익을 얻게 되므로, 가압류를 해제하는 것 역시 사기죄에서 말하는 재산적 처분행위에 해당한다.
- ② 보험사고에 해당할 수 있는 사고로 인하여 경미한 상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그 상해를 과장하여 병원에 장기간 입원하고 이를 이유로 실제 피해에 비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 사기죄가 성립한다.
- ③ 예금주인 현금카드 소유자로부터 일정액의 현금을 인출해 오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카드를 건네받아 그 위임받은 금액을 초과한 현금을 인출한 행위는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를 구성할 수 있다.
- ④ 자동차의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나아가 자신 소유라는 말을 하면서 자동차를 제3자에게 매도하고 이전 등록까지 마쳐 준 경우, 매수인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

【형사소송법 25문】

【문 1】수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대통령에게 제출한 청원서를 대통령비서실로부터 이관받은 검사가 진정사건으로 내사한 후 내사종결처리하였다면, 그 내사종결처리는 고소 또는 고발사건에 대한 불기소처분에 해당하고, 그 청원서 제출자는 그 내사종결처리에 대해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
- ② 경찰관이 취객을 상대로 한 이른바 부촉빼기 절도범을 단속하기 위하여 공원 인도에 쓰러져 있는 취객 근처에서 감시하고 있다가, 마침 피고인이 나타나 취객을 부촉하여 10m 정도 끌고 가 지갑을 뺏자 현장에서 체포하여 기소한 경우, 이는 위법한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가 아니다.
- ③ 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하는데, 고소를 할 수 있는 자가 여러 명인 경우 한 사람이 그 고소할 수 있는 기간을 지키지 못하였다 해도 다른 사람에게 아직 고소할 수 있는 기간이 남아 있다면, 그 다른 사람은 유효하게 고소를 할 수 있다.
- ④ 형사소송법 제236조의 대리인에 의한 고소의 경우, 대리권이 정당한 고소권자에 의하여 수여되었음이 실질적으로 증명되면 충분하고, 고소를 할 때 반드시 위임장을 제출한다거나 ‘대리’라는 표시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문 2】형사소송법상 수사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 ① 피의자에 대한 신문에 참여하고자 하는 변호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피의자가 신문에 참여할 변호인 1인을 지정하고, 그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
- ② 신문에 참여할 변호인은 신문 중이라도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③ 피의자의 진술은 피의자의 동의를 얻어야 영상녹화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의 개시부터 종료까지의 전 과정 및 객관적 정황을 영상녹화하여야 한다.
- ④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아닌 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고, 이 경우 그의 동의를 받아 영상녹화할 수 있다.

【문 3】형사소송법상 현행범인으로 간주되는 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잘못되었거나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범인으로 호창(呼唱)되어 추적되고 있는 자
- ②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볼만한 흉기를 소지하고 있다고 지적되고 있는 자
- ③ 신체 또는 의복류에 현저한 증적이 있는 자
- ④ 누구임을 물음에 대하여 도망하려 하는 자

【문 4】재심 청구 이유로 가장 잘못되었거나 적절하지 아니한 것은?

- ① 원판결의 증거된 서류 또는 증거물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위조 또는 변조된 것이 증명된 때, 또는 원판결의 증거된 증언,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인 것이 증명된 때
- ② 무고로 인하여 유죄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 그 무고의 죄가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또는 원판결의 증거된 재판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변경된 때
- ③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 면소 또는 공소기각을,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의 면제 또는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경한 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 또는 저작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또는 상표권을 침해한 죄로 유죄의 선고를 받은 사건에 관하여 그 권리에 대한 무효의 심결 또는 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때
- ④ 원판결, 전심판결 또는 그 판결의 기초된 조사에 관여한 법관, 공소의 제기 또는 그 공소의 기초된 수사에 관여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것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단, 원판결의 선고 전에 법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대하여 공소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원판결의 범원이 그 사유를 알지 못한 때에 한한다.

【문 5】공판준비 및 공판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잘못되었거나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법원은 검사, 피고인 및 변호인에게 공판준비기일을 통지하여야 한다. 공판준비기일에는 법원사무관등이 참여한다. 공판준비기일은 공개한다. 다만, 검사와 피고인 및 변호인이 공개를 원하지 않거나 공개하면 증거가 인멸되거나 절차 진행이 방해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공판준비기일에는 검사 및 변호인이 출석하여야 한다. 법원은 공판준비기일이 지정된 사건에 관하여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고인을 소환할 수 있으며, 피고인은 법원의 소환이 없는 때에도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할 수 있다. 재판장은 출석한 피고인에게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주어야 한다.
- ③ 공판준비기일에서 신청하지 못한 증거는, 그 신청으로 인하여 소송을 현저히 지연시키지 아니하는 때,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공판준비기일에 제출하지 못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를 소명한 때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판기일에 신청할 수 있다. 단, 법원은 직권으로 증거를 조사할 수 있다.
- ④ 공판정은 판사와 검사, 법원사무관등이 출석하여 개정한다. 검사의 좌석과 피고인 및 변호인의 좌석은 대등하며, 법대의 좌우측에 마주 보고 위치하고, 증인의 좌석은 법대의 정면에 위치한다. 다만, 피고인신문을 하는 때에는 피고인은 증인석에 좌석한다.

【문 6】 형사소송법상 국선변호에 관한 설명으로서 가장 잘못되었거나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형사소송법은 변호인이 없는 때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하는 경우로 피고인이 구속된 때,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때, 피고인이 70세 이상인 때를 들고 있다.
- ② 형사소송법은 변호인이 없는 때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하는 경우로 피고인이 농아자인 때, 피고인이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때,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을 초과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도 열거하고 있다.
- ③ 법원은 피고인이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피고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 ④ 법원은 피고인의 연령·지능 및 교육 정도 등을 참작하여 권리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문 7】 증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피고인이 공소사실 및 이를 뒷받침하는 수사기관이 원진술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 내용을 부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진술자의 법정 출석과 피고인에 의한 반대신문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면, 그 조서는 진정한 증거가치를 가진 것으로 인정받을 수 없어 원칙적으로 이를 주된 증거로 하여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지만, 수사기관의 조서를 증거로 함에 피고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 내지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아니 된다.
- ③ 공정증서등본은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다.
- ④ 법원이 증인에 대한 구인장 집행불능 상황을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소재불명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있으려면, 증인에 대한 구인장의 강제력에 기하여 증인의 법정 출석을 위한 가능하고도 충분한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부득이하게 증인의 법정 출석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사정을 검사가 입증한 경우여야 한다.

【문 8】 당연히 증거 능력이 있는 서류가 아닌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② 상업장부
- ③ 법원의 명령을 받은 감정인이 작성한 감정서
- ④ 법원의 판결 사본

【문 9】 형사소송법상의 증거보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증거보전의 청구를 한 자는 판사의 허가를 얻어 증거보전의 처분에 관한 서류와 증거물을 열람, 등사할 수 있다.
- ② 증거보전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3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다.
- ③ 증거보전절차에 의하여 작성된 조서는 그 자체로서 증거능력이 있다.
- ④ 증거보전에서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압수, 수색, 검증, 피고인 신문, 감정이다.

【문10】 다음 중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법원사무관등’이라 함)의 제척사유가 아닌 것은?

- ① 법원사무관등이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후견감독인인 때
- ② 법원사무관등이 사건에 관하여 증인, 감정인, 피해자의 대리인으로 된 때
- ③ 법원사무관등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대리인, 변호인, 보조인으로 된 때
- ④ 법원사무관등이 사건에 관하여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한 때

【문11】 법원의 관할에 관하여 가장 잘못 설명한 것은?

- ① 형사소송법상 관련사건이란, 1인이 범한 수죄, 수인이 공동으로 범한 죄, 수인이 동시에 동일 장소에서 범한 죄, 범인은닉죄·증거인멸죄·위증죄·허위감정통역죄 또는 장물에 관한 죄와 그 본범의 죄를 말한다.
- ② 동일사건이 사물관할을 같이하는 수개의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먼저 공소를 받은 법원이 심판한다. 단, 각 법원에 공통되는 직근 상급법원은 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뒤에 공소를 받은 법원으로 하여금 심판하게 할 수 있다.
- ③ 법원의 관할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검사나 피고인은 관계있는 제1심법원에 공통되는 직근 상급법원에 관할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 ④ 관할법원이 법률상의 이유 또는 특별한 사정으로 재판권을 행할 수 없는 경우 피고인은 직근 상급법원에 관할이전을 신청할 수 있다.

【문12】 판결의 선고와 관련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판결선고기일에는 필요적 변호사건의 경우에도 변호인의 출석을 요하지 않는다.
- ② 선량한 풍속을 보호하거나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판결의 선고를 비공개로 할 수 있다.
- ③ 판결을 선고할 때에는 주문을 낭독하고 이유의 요지를 설명하여야 하며 적절한 훈계를 할 수 있다.
- ④ 검사가 공판기일의 통지를 2회 이상 받고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판결만을 선고하는 때에는 검사의 출석 없이 개정할 수 있다.

【문13】 다음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 ① 주거, 사무소 또는 송달영수인의 선임을 신고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서류를 우체에 부치거나 기타 적당한 방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 서류를 우체에 부친 경우에는 도달된 때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한다.
- ② 공시송달은 법원사무관등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게시장에 공시하여야 한다. 최초의 공시송달은 공시를 한 날로부터 2주일을 경과하면 그 효력이 생긴다. 단, 제2회 이후의 공시송달은 5일을 경과하면 그 효력이 생긴다.
- ③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시로써 계산하는 것은 즉시부터 기산하고 일, 월 또는 연으로써 계산하는 것은 초일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단, 시효와 구속기간의 초일은 시간을 계산함이 없이 1일로 산정한다. 연 또는 월로써 정한 기간은 역서에 따라 계산한다.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에 해당하는 날은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단, 시효와 구속의 기간에 관하여서는 예외로 한다.
- ④ 구인한 피고인을 법원에 인치한 경우에 구금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인치한 때로부터 24시간 내에 석방하여야 한다. 법원은 인치받은 피고인을 유치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교도소·구치소 또는 경찰서 유치장에 유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치기간은 인치한 때부터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문14】 다음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 ① 소환장에는 피고인의 성명, 주거, 죄명, 출석일시 및 장소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음을 기재하고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소환장은 송달하여야 하고, 피고인이 기일에 출석한다는 서면을 제출하거나 출석한 피고인에 대하여 차회기일을 정하여 출석을 명한 때에는 소환장의 송달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출석을 명한 때에는 그 요지를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 ② 구속영장에는 피고인의 성명, 주거, 죄명, 공소사실의 요지, 인치구금할 장소, 발부연월일, 그 유효기간과 그 기간을 경과하면 집행에 착수하지 못하며 영장을 반환하여야 할 취지를 기재하고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피고인의 성명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인상, 체격 기타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피고인을 표시할 수 있고, 피고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주거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 ③ 구금된 피고인에 대하여는 교도관에게 통지하여 소환한다. 피고인이 교도관으로부터 소환통지를 받은 때에는 소환장의 송달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 ④ 구속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한다. 단,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재판장,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그 집행을 지휘할 수 있고 이때는 법원사무관등에게 그 집행을 명할 수 있다. 법원사무관등은 그 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사법경찰관리·교도관 또는 법원경위에게 보조를 요구할 수 있고, 관할구역 외에서 집행하는 때에는 사법경찰관리·교도관에게 위탁하여야 한다.

【문15】 탄핵증거와 자백의 보강법칙, 공판조서의 증명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당해 공판기일에 열석하지 아니한 판사가 재판장으로서 서명날인한 공판조서는 제대로 된 공판조서라고 할 수 없어 이와 같은 공판조서는 공판기일에 있어서의 소송절차를 증명할 공판조서로서의 증명력이 없다.
- ② 피고인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앞에서 한 진술과 다른 내용을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한 경우, 검사는 피고인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한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앞에서 한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영상 녹화물을 원칙적으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피고인에게 재생하여 시청하게 할 수 있다.
- ③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 ④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자백이 있으면 별도의 보강증거가 없어도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있다.

【문16】 공소시효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이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
- ② 형법에 의하여 형을 가중 또는 감경할 경우에는 가중 또는 감경하지 아니한 형에 의하여 공소시효의 기간을 정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과 같은 특별법에 의하여 형이 가중되는 경우에도 가중되기 전의 형에 의하여 공소시효기간을 정한다.
- ③ 범죄를 저지른 후 법률이 개정되어 법정형이 가벼워진 경우에는 당해 범죄사실에 적용될 가벼운 법정형(신법의 법정형)이 공소시효기간의 기준으로 된다.
- ④ 포괄일죄의 공소시효는 최종의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진행한다.

【문17】 다음 중 피고인의 구속과 보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피고인이 도망한 경우에는 피고인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 등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준 후가 아니어도 구속할 수 있다.
- ② 재판장은 보석에 관한 결정을 하기 전에 검사의 의견을 물어야 하고, 검사는 이에 대하여 지체 없이 의견을 표명하여야 한다.
- ③ 법원은 보석허가결정에 따라 석방된 피고인이 보석조건을 준수하는 데 필요한 범위 안에서 관공서 그 밖의 공사단체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④ 법원은 피고인 외의 자가 작성한 출석보증서를 제출할 것을 조건으로 한 보석허가결정에 따라 석방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일에 불출석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그 출석보증인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감치에 처할 수 있다.

【문18】 공소 제기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으로 짝지어진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공소는 검사가 피고인으로 지정한 사람 외의 다른 사람에게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지만, 공소시효에 관하여는 공범 중 한 사람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면 다른 공범자에게도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다.
- ㉡ 범죄사실의 일부에 대한 공소는 그 효력이 전부에 미친다.
- ㉢ 판례는, 친고죄인 강간죄의 경우 고소가 취소되었거나 고소기간이 지난 후에 고소가 있는 때에는 강간죄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나아가 강간범행에 수반하여 저질러진 폭행·협박의 점을 따로 떼어내어 폭행죄·협박죄 또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죄로 공소제기할 수 없으며, 만일 그와 같은 공소 제기가 있다면 이에 대하여는 공소기각의 판결을 해야 한다고 한다.
- ㉣ 판례는, 간통죄는 각 성교행위마다 1개의 간통죄가 성립하지만, 가령 피고인 갑이 2007년 11월경부터 2008년 1월 하순경까지 서울 서초구 서초로 1 홍길동식당 방에서 월 평균 10회씩 도합 약 20회에 걸쳐 을과 성교하였다고 공소사실을 기재한 공소는 유효하다고 한다.

- ① ㉠ - ㉡ - ㉢ ② ㉠ - ㉡
- ③ ㉡ - ㉢ - ㉣ ④ ㉡ - ㉣

【문19】 형사소송법과 판례에 따를 때 다음 중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경우는?

- ① 제1심이 피고인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금 536,240,000원을 추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피고인만이 항소한 사건에서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금 657,275,000원을 추징하는 판결을 선고한 경우
- ② 재심에서 원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는 경우
- ③ 피고인이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약식명령에 정해진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는 경우
- ④ 피고인만이 항소한 사건에서, 제1심이 미결구금일수를 잘못 산입한 것을 발견하고는 항소심이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주형은 제1심 판결과 동일하게 선고하면서 제1심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만을 제1심 판결보다 줄여서 선고한 경우

【문20】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출석 없이 심판할 수 있는 경우로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소기각 또는 면소의 재판을 할 것이 명백한 때
- ② 장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다액 500만원을 초과하는 벌금 또는 구류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피고인의 불출석허가 신청이 있는 때
- ③ 약식명령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이 정식 재판절차의 공판기일에 2회 이상 출석하지 아니한 때
- ④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정하지 못하는 경우에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

【문21】 다음 재판서 중 법관의 서명날인을 기명날인으로 갈음할 수 없는 재판서는?

- ① 구속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
- ② 감정유치장
- ③ 보석취소결정
- ④ 상소권회복청구에 대한 결정

【문22】 재정신청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① 2007. 6. 1. 개정 형사소송법에서 모든 고소 사건(형법 제123조 내지 제125조의 죄에 대하여는 고발을 한 사건 포함)으로 확대된 재정신청제도는, 형사소송법 제정 당시 모든 고소·고발 사건에 대해 인정되던 제도였고, 1973년 형사소송법 개정 때 그 대상 범죄가 수사기관의 인권침해범죄를 규정한 형법 제123조 내지 제125조의 범죄로 축소되었다가 2007. 6. 1. 개정으로 다시 확대된 것이다.
- ② 재정신청을 하려는 자는, 검찰청법 제10조에 따른 항고를 거쳤다면 그 항고기각 결정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에 재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재정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어 법원이 공소제기를 결정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고, 검사가 법원의 결정에 따라 공소를 제기한 때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다.
- ④ 재정신청사건의 심리도 원칙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며, 심리 중에 관련 서류 및 증거물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다.

【문23】 간이공판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합의부가 제1심으로 심판할 사건에 대하여는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을 결정할 수 없다.
- ②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을 결정한 사건에서는 증거조사를 마쳤을 때 재판장이 각 증거조사의 결과에 대한 의견을 묻고 권리를 보호함에 필요한 증거조사를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할 필요가 없다.
- ③ 법원은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을 결정한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의 자백이 신빙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검사의 의견을 들어 그 결정을 취소하여야 하고, 원칙적으로 공판절차를 갱신하여야 한다.
- ④ 피고인이 제1심 법원에서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하여 제1심 법원이 이에 대하여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을 결정하고, 이에 따라 제1심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증거조사를 한 이상, 설사 항소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였다라도 제1심 법원에서 이미 증거능력이 있었던 증거는 항소심에서도 증거능력이 그대로 유지된다.

【문24】 항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 ① 항소인 또는 변호인은 형사소송법 제361조의2에 의한 항소법원의 기록송부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항소인이나 변호인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항소의 제기가 법률상 방식에 위반하거나 항소권소멸 후인 것이 명백한 경우에 원심법원이 항소기각의 결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항소법원은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 ③ 공판의 공개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한하여 항소이유로 할 수 있다.
- ④ 공소기각의 판결이 법률에 위반됨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때에는 판결로써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여야 한다.

【문25】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의할 때 2008. 1. 1.에 구속되어 2008. 1. 20. 공소제기 된 피고인에 대하여 제1심 법원에서 구속을 계속할 수 있는 최장 기한의 말일은?

- ① 2008. 7. 1. ② 2008. 7. 19.
- ③ 2008. 6. 30. ④ 2008. 7. 20.

2008년 3월 23일 시행
법원 9급 공개경쟁채용 제1·2차시험 【등기사무직렬】
(제 2 교시)

문제책형
①

시험과목	민 법(25문)	민 사 소 송 법 (25문)
	상 법(25문)	부 동 산 등 기 법 (25문)

응시자 준수사항

1. 문제책을 받더라도 시험시작 시간까지 문제내용을 보아서는 안됩니다.
2. 문제책을 받는 즉시 과목편철 순서, 문제누락 여부, 인쇄상태 이상 유무 등을 확인한 후 답안지의 문제책형란에 본인의 책형을 표기합니다.
3. 시험이 시작되면 문제를 주의 깊게 읽은 후 문항의 취지에 가장 적합한 하나의 정답만을 고르며, 문제내용에 관한 질문은 받지 않습니다.
4. 시험시간 종료 후 문제책을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 시험시간이 종료되기 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문제책을 시험장 밖으로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공 지 사 항

공개되는 정답가안에 이의가 있는 응시자는 대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를 통하여 아래와 같이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 아 래 -

1. 정답가안 공개 : 2008. 3. 24.(월) 12:00 이후
[대법원 홈페이지/정보광장/시험정보/시험자료실]에 게시
 2. 이의제기
기간 : 2008. 3. 24.(월) 12:00 ~ 2008. 3. 26.(수) 17:00
방법 : [대법원 홈페이지/정보광장/시험정보/정답이의제기]에 게시
 3. 최종정답 공개 : 2008. 4. 4.(금) 12:00 이후
[대법원 홈페이지/정보광장/시험정보/시험자료실]에 게시
- ※ 대법원 홈페이지 정답이의제기 전용게시판 이외의 방법에 의한 이의제기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상 법 25문】

【문 1】 다음 중 주식회사의 자본충실의 원칙상 요구되거나 금지·제한되는 것이 아닌 것은?

- ① 주금납입기일에 있어서 전액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전부이행
- ② 자기주식의 취득 및 질취의 제한
- ③ 이익배당의 제한
- ④ 전환사채 인수대금 납입시 상계 금지

【문 2】 다음 중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에 관하여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영업의 특정한 종류 또는 특정한 사항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용인은 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 ② 주식회사의 기관인 상무이사는 상법 제15조 소정의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지는 그 회사의 사용인을 겸임할 수 있다.
- ③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이 특정한 영업이나 특정한 사항에 속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한 경우 표현지배인에 관한 상법 제14조가 유추적용된다.
- ④ 전산개발장비 구매와 관련된 실무를 총괄하는 상업사용인의 지위에 있는 자는 회사에 새로운 채무부담을 발생시키는 지급보증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

【문 3】 다음 중 조직변경에 관하여 가장 옳은 것은?

- ① 주식회사는 사채의 상환을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총주주의 일치에 의한 총회의 결의로 그 조직을 변경하여 이를 유한회사로 할 수 있다.
- ② 주식회사를 유한회사로 조직변경하는 경우에는 회사에 현존하는 순재산액보다 많은 금액을 자본의 총액으로 할 수 있다.
- ③ 유한회사는 총사원의 4분의 3에 의한 총회의 결의로 그 조직을 변경하여 주식회사로 할 수 있다.
- ④ 유한회사를 주식회사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법원의 인가를 얻지 아니하면 그 조직변경은 효력이 없다.

【문 4】 상법 제628조 소정의 납입가장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판례에 의함)

- ① 비록 회사의 영업에 관하여 어떤 사항을 위임받은 사용인이라 하더라도 그 위임받은 사항이 포괄적인 것이 아닌 개개의 구체적인 사항에 불과한 경우에는 납입가장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 ② 회사의 발기인, 업무집행사원, 이사, 감사, 이사직무대행자 또는 지배인은 아니지만 회사의 대주주로서 회사의 경영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오다가 증자과정을 지시·관여한 사람은 납입가장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 ③ 신주발행의 절차적, 실체적 하자가 극히 중대하여 신주발행의 실체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주인수인들의 주금납입의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납입가장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 ④ 회사의 설립등기 직후 납입된 주금을 인출하여 회사의 영업양수대금 명목으로 영업양도인에게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영업양수가 가장된 것이고 실제로는 주금의 제공자에게 주금을 반환한 것에 불과하다면 납입가장죄가 성립한다.

【문 5】 다음 중 대세적 효력이 없는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이사회결의무효확인판결 ②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판결
- ③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판결 ④ 주주총회결의취소판결

【문 6】 다음 회사법상의 소 중 합명회사와 합자회사의 경우에는 인정되나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인정되지 아니하는 소의 유형끼리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 | | | |
|-----------|------------------|-----------|
| A. 설립무효소송 | B. 해산소송 | C. 합병무효소송 |
| D. 설립취소소송 | E. 사원의 제명에 관한 소송 | |

- ① D, E ② A, D
- ③ C, E ④ B, C

【문 7】 상법 제398조 소정의 이사의 자기거래에 관하여 다음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상법 제398조는 이사와 회사 사이의 자기거래에 관하여 이사회 의사결정인만을 규정하고 사후승인은 배제하고 있다.
- ② 자기거래와 관련된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기에 앞서 이사회에 그 거래에 관한 자기의 이해관계 및 그 거래에 관한 중요한 사실들을 개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 ③ 주주총회는 정관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이사와 회사 사이의 자기거래에 관하여 사후추인 결의를 함으로써 당해 거래를 유효하게 할 수 있다.
- ④ 회사가 대표이사에게 회사의 채권을 양도하는 자기거래를 한 경우 그 양도행위에 관하여 이사회의 결의가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회사가 주장·입증책임을 부담한다.

【문 8】 A주식회사의 주주 甲은 아직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A회사 성립 후 6월이 경과한 후에 자신의 주식을 B에게 양도하면서 확정일자를 갖추지 않은 주식보관증 원본을 A회사에 교부한 후, 다시 같은 주식을 C에게 중복하여 양도하면서 A회사에게 주식보관증 사본을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여 A회사에 도달한 경우, B와 C 상호간의 우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C는 주식양수에 관한 양도통지의 확정일자를 증서의 원본이 아닌 사본에 갖추었으므로, B가 甲과 C 사이의 주식양도가 있는 후라도 자신의 주식양수에 관하여 A회사에 교부된 위 주식양도증 원본에 새로이 확정일자를 갖추거나 A회사로부터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승낙을 받게 되면 B는 C에 대하여 위 주식양수를 가지고 대항할 수 있다.
- ② 甲의 이중양도행위에 C가 적극 가담하였다면 甲의 C에 대한 양도행위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 ③ B 또는 C가 甲에 대한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주식을 양도받게 되었는지 여부는 B와 C 사이의 우열관계 판단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 ④ B가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 또는 승낙 여부를 기준으로 C에 대한 대항력을 취득하지 못하였다면, 비록 A회사로부터 명의개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문16】 다음 중 주식회사의 청산에 관하여 가장 옳은 것은?

- ① 회사가 파산한 경우 이사가 청산인이 된다.
- ② 청산인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각별로 그 채권의 신고를 최고하여야 하며 그 채권자가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청산에서 제외한다.
- ③ 청산에서 제외된 채권자는 분배되지 아니한 잔여재산에 대하여서만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
- ④ 청산인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해임할 수 없다.

【문17】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가 임기의 만료나 사임에 의하여 퇴임함으로써 말미암아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대표이사나 이사의 원수(최저인원수 또는 특정한 인원수)를 채우지 못하게 되는 결과가 일어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틀린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그 퇴임한 이사는 새로 선임된 이사(후임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로서의 권리의무가 있다.
- ② 이사의 퇴임등기를 하여야 하는 기간은 일반의 경우처럼 퇴임한 이사의 퇴임일부터 기산하는 것이 아니라 후임이사의 취임일부터 기산한다.
- ③ 후임이사가 취임하기 전이라도 퇴임한 이사의 퇴임등기만을 따로 신청할 수 있다.
- ④ 퇴임한 대표이사가 후임 대표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대표이사로서의 권리의무가 있는 기간 동안에는 후임 대표이사의 선임절차를 해태하였다고 하여 퇴임한 대표이사를 과태료에 처할 수 없다.

【문18】 다음 중 위탁매매업에 관하여 가장 틀린 것은?

- ① 위탁매매인은 위탁자를 위한 매매로 인하여 상대방에 대하여 직접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한다.
- ② 위탁매매인이 위탁매매로 인하여 취득한 채권은 위탁자와 위탁매매인 또는 위탁매매인의 채권자간의 관계에서는 이를 위탁자의 채권으로 본다.
- ③ 위탁매매인이 거래소의 시세있는 물건의 매매를 위탁받은 때에는 직접 그 매도인이나 매수인이 될 수 있다.
- ④ 위탁자가 지정한 가격보다 고가로 매도하거나 옴가로 매수한 경우에는 그 차액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위탁매매인의 이익으로 한다.

【문19】 다음 중 상법상의 상인으로 볼 수 없는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변호사가 변호사법 관계 규정에 따라 설립한 법무법인
- ② 출자금 총액 2,000만 원 미만인 합자회사
- ③ 상호저축은행법상 상호신용계와 유사하게 상인적 방법에 의한 영업으로 낙찰계를 운영하는 계주
- ④ 농장을 경영하는 회사

【문20】 다음 각 채권 중 상법 제64조에 의한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 것은? (판례에 의함)

- ① 자동차 할부구입과 관련한 보증보험계약에 기초한 급부가 이루어졌으나 그 보증보험계약이 무효로 됨에 따라 발생한 부당 이득반환청구권
- ② 상법 제401조에 기한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 ③ 근로계약이나 단체협약에 기한 근로자의 유족들의 회사에 대한 위로금채권
- ④ 새마을금고가 상인인 회원에게 자금을 대출한 경우 그 대출금채권

【문21】 다음 중 가장 옳은 것은?

- ① 상사에 관하여 상법에 규정이 없으면 민법에 의하고 민법에 규정이 없으면 상관습에 의한다.
- ② 공법인의 상행위에 대하여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더라도 상법을 적용한다.
- ③ 당사자 중 그 1인의 행위가 상행위인 때에는 그 1인에 대하여만 상법을 적용한다.
- ④ 지배인, 상호, 상업장부와 상업등기에 관한 규정은 소상인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문22】 다음 익명조합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익명조합원의 출자목적물은 ‘금전 또는 재산’에 한하나, 민법상 조합의 조합원의 출자목적물은 ‘금전 기타 재산 또는 노무’이다.
- ② 익명조합원의 자격에는 제한이 없으나, 영업자는 상인이어야 한다.
- ③ 익명조합원은 경업금지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 ④ 익명조합계약은 영업자 또는 익명조합원의 파산으로 인하여 종료한다.

【문23】 다음 공중접객업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상법은 공중접객업자와 객과의 계약관계 중 객의 휴대품에 대한 기업주의 책임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다.
- ② 공중접객업자는 객으로부터 임치를 받은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이 불가항력으로 인한 것임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 ③ 상법 제152조 제1항 소정의 ‘객’이라 함은 반드시 공중접객업자와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를 의미한다.
- ④ 공중접객업자의 책임은 수치한 물건에 관하여는 임치물물 객에게 반환한 후 6월이 경과하면 원칙적으로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문24】 다음 중 가장 옳은 것은?

- ① 보증이 상행위이거나 주채무가 상행위로 인한 것인 때에 보증인이 연대보증을 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보증은 연대보증인 된다.
- ② 상인간에 금전의 소비대차를 한 때에는 대주는 특약이 없는 한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없다.
- ③ 상행위의 위임에 의한 대리권은 본인의 사망으로 소멸한다.
- ④ 당사유치권은 채권자와 채무자 중 일방이 상인인 경우에도 인정됨이 원칙이다.

【문25】 다음 중 대리상에 관하여 가장 틀린 것은?

- ① 거래의 대리로 인한 채권이 변제기에 있다 하더라도 그 변제를 받을 때까지 대리상이 본인을 위하여 점유하는 물건을 유치하는 것은 위임의 본지에 반하므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 ② 대리상은 물건의 판매의 위탁을 받은 경우 매매의 목적물의 하자 또는 수량부족 기타 매매의 이행에 관한 통지를 받을 권한이 있다.
- ③ 대리상은 본인의 허락없이 자기나 제3자의 계산으로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의 이사가 되지 못한다.
- ④ 당사자가 계약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2월 전에 예고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부동산등기법 25문】

【문 1】 우리나라의 부동산등기부와 관련된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우리나라의 등기부는 부책식(장부식) 등기부, 카드식(보관철식) 등기부, 전산등기부로 변화되어 왔다.
- ② 피보전권리가 전세권설정등기청구권이라면 그 청구권 보전을 위하여 소유권에 처분금지가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그 가처분 등기는 을구에 기재하여야 한다.
- ③ 등기의 순서는 접수번호의 순서에 따르고, 접수번호의 순서와 다른 순서로 등기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권리의 순위는 원칙적으로 등기의 전후에 따라 결정된다.
- ④ 을구에 기재할 사항이 없는 때에는 을구를 두지 않을 수 있다.

【문 2】 부동산등기의 종류(분류)에 관한 설명이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근저당권말소의 예고등기는 부기등기에 속한다.
- ② 주등기에 대비되는 등기가 부기등기이다.
- ③ 등기의 효력에 따라 종국등기와 예비등기로 구분된다.
- ④ 가등기는 예비등기에 속한다.

【문 3】 다음 중 현재 부동산등기 절차에서 허용하고 있는 등기가 아닌 것은 ?

- ① 권리소멸약정등기
- ② 공유물분할금지 약정등기
- ③ 전세권의 양도 또는 담보제공의 금지등기
- ④ 소유권보존청구권가등기

【문 4】 등기의 대상인 물건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부동산등기법상 등기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이다.
- ② 우리나라 영토 내의 육지부분은 모두 등기능력이 인정되므로 공유수면 및 그 아래의 토지도 등기할 수 있다.
- ③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모두 등기능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 ④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이라 하더라도 아파트 관리사무소, 노인정과 같이 독립된 건물로서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독립하여 등기할 수 있다.

【문 5】 다음 중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 ① 가처분권리자가 본안사건의 승소확정판결을 첨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가처분등기 이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이외의 등기의 말소
- ②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시 가등기 이후에 경료된 중간처분등기의 말소
- ③ 장기간 방치된 저당권 등의 정리를 위한 등기의 말소
- ④ 소송이 원고의 이익으로 종결된 경우 그 판결에 의한 등기의 말소 또는 회복의 등기를 한 때의 예고등기의 말소

【문 6】 등기신청서의 작성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 ① 등기신청서에 일정한 사항을 기재하고 신청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야 한다. 신청서에 서명할 수 있는 등기신청은 인감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
- ② 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적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 ③ 구분건물에 관하여 대지권이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의 표시도 기재하여야 한다.
- ④ 매매계약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거래가액을 기재하여야 하며, 등기원인증서가 판결이나 조정조서 등에 의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문 7】 등기신청의 취하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① 등기신청의 취하는 등기완료 전에는 가능하므로 등기신청을 각하한 경우에는 그 결정 이후에도 취하할 수 있다.
- ② 수개의 부동산에 관한 등기신청을 일괄하여 동일한 신청서에 의하여 한 경우 그 중 일부 부동산에 대하여만 등기신청을 취하하는 것도 가능하다.
- ③ 등기신청의 취하는 등기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우편의 방법에 의할 수 있다.
- ④ 쌍방당사자로부터 등기신청에 대한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등기신청을 취하기 위하여는 쌍방 중 어느 일방만으로부터 취하에 대한 위임을 받으면 족하다.

【문 8】 등기부등본의 발급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 ① 공동담보목록, 신탁원부는 등기부등본 발급 신청시 그에 관하여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발급하며, 이들과 등기부등본을 합철하여 1통의 등기부등본으로 교부한다.
- ② 중복등기가 된 부동산의 등기부에 대하여는 중복된 여러 등기부 중 당사자가 발급받고자 신청한 등기부에 대한 등본을 발급하되, 그 등기부 외에 따로이 중복등기가 있다는 취지를 부전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 ③ 등기신청이 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등기가 완료되기 전에는 등기부등본을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수작업폐쇄등기부의 등본은 수작업폐쇄등기부를 촬영하여 생성된 이미지를 출력하여 작성하되, 위와 같은 방법으로 생성된 이미지가 없거나 신청인이 특별히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작업폐쇄등기부를 전부 등사하여 작성할 수 있다.

【문 9】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 ① 해당 등기관을 감독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원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나, 이의신청서는 당해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이의신청은 등기신청인인 등기관리자나 등기의무자에 한하여 할 수 있고, 제3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 ③ 이의신청을 할 기간의 제한이 없으므로 이의의 이익이 있는 한 언제라도 할 수 있다.
- ④ 관할지방법원의 기재명령이 있으나 그 명령에 따른 등기를 하는데 장애가 되는 제3자 명의의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기재명령에 따른 등기를 할 수 없다.

【문10】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에 관한 설명 중 가장 틀린 것은?

- ① 건축물대장의 소유자표시란이 공란이거나 소유자표시에 일부 누락이 있어 대장상의 소유자를 확정할 수 없는 미등기 건물에 관해서는, 건축물대장의 비치·관리업무의 소관청인 시장·군수·구청장을 상대로 하여 당해 건물이 자신의 소유임을 확인하는 내용의 확정판결을 받아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② 따라서 건축허가명의인 또는 건축주를 상대로 한 소유권확인 판결로는 소유권보존등기신청을 할 수 없다.
- ③ 시장이 발행한 ‘임시사용증인서’나 ‘착공신고서’로는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신청을 할 수 없다.
- ④ 미등기 건물의 양수인은 건축물대장에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 전등록이 되어 있으면 직접 자기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문11】 경정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였으나 등기관의 착오로 그 일부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누락된 경우에, 경정등기절차에 의하여 누락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수 있다.
- ② 토지에 관한 등기가 이루어진 뒤에 토지의 합필과 분필로 인하여 그 토지에 관한 기존 등기부상의 지번표시가 토지대장 및 지적도상의 지번표시와 다르게 된 경우, 경정등기절차에 의하여 이를 바로잡을 수는 없다.
- ③ 신청착오로 건물등기부상 건물의 소재지번과 대장상의 소재지번이 다르게 된 경우에, 같은 건물에 관하여 따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등기의 형식상으로 보아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이해관계인이 없는 경우에는 건물 소재지번의 경정등기가 가능하다.
- ④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마친 후 종전의 분할협의를 상속인들 전원의 합의로 해제한 다음 다시 새로운 분할협의를 하였음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경정등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문12】 다음 중 등기신청시의 첨부 서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 ① 판결에 의한 등기를 신청함에 있어 판결정본과 송달증명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② 조정조서나 화해조서에 의한 경우에는 조서의 정본이외에 별도의 송달증명은 첨부할 필요가 없다.
- ③ 화해권고결정에 의한 경우에는 결정정본과 송달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④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에 있어서 등기절차의 이행과 반대급부의 이행이 각각 독립적으로 기재되어 있으면 집행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문13】 전세권설정등기를 신청함에 있어 그 신청서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 ① 전세금 ② 전세권의 목적인 범위
③ 존속기간 ④ 신청인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문14】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첨부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 ①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가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 ② 공유농지의 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 ③ 지목은 농지이나 토지의 현상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재배지로 이용되지 않음이 관할관청이 발급하는 서면에 의하여 증명되는 토지에 관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 ④ 농업법인의 합병을 원인으로 하여 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문15】 등기신청시 첨부할 인감증명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 ① 등기명의인이 등기의무자로서 근저당권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필증을 분실하여 확인서면이 아닌 공정증서부분을 첨부하였다면 인감증명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 ② 제3자의 동의 또는 승낙을 증명한 서면을 첨부하는 경우 그 서면이 공정증서인 때에는 인감증명을 제출하지 않는다.
- ③ 협의분할에 의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분할협의서에 날인한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 ④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관공서가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등기의무자의 승낙서와 인감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문16】 신탁등기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 ① 신탁의 등기는 수탁자 명의의 재산이 수탁자의 고유재산이 아니고 신탁목적에 따른 구축을 받는 재산임을 공시하는 등기이다.
- ②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 ③ 신탁의 등기를 하는 때에는 신탁으로 인한 권리이전의 등기의 부기등기로서 신탁재산임을 기재하고 신탁원부의 번호를 기재한다.
- ④ 신탁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수탁자를 등기의무자로 하는 처분제한의 등기촉탁은 이를 수리하고 위탁자를 등기의무자로 하는 등기촉탁은 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문17】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대한 다음의 신청 중 허가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경우는?

- ① 소유권이전을 목적으로 가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 ②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 ③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등기를 그 지정 후에 신청하는 경우
- ④ 저장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문18】 근저당권 설정등기와 관련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① 근저당설정등기를 함에 있어 그 채권최고액은 반드시 단일하게 기재하지만 근저당권의 채권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준공유하는 관계이므로 각 채권자별 지분을 기재한다.
- ② 채무자가 수인인 경우 그 수인의 채무자가 연대채무자일 경우 등기부에는 "연대채무자"로 기재한다.
- ③ 근저당권설정자와 채무자가 동일인일 경우에는 신청서 및 등기부에 채무자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 ④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주등기의 방법으로, 지상권이나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부기등기의 방법으로 한다.

【문19】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 ① 유증의 목적 부동산이 미등기인 경우에는 유언집행자가 상속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다음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 ②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상속등기가 이미 경료되었다면 상속등기를 말소하고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 ③ 유언집행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과반수 이상의 유언집행자들이 수증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동의하면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④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의 가등기는 유언자가 사망한 후인 경우에는 이를 수리하고, 유언자가 생존중인 경우에는 이를 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문20】 가압류·가처분등기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 ① 가처분에 위반한 처분행위는 가처분채무자와 그 상대방 및 제3자 사이에서는 완전히 유효하고 단지 가처분채권자에게만 대항할 수 없으며, 가처분채권자는 피보전권리의 한도에서 가처분위반행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다.
- ② 등기이전청구권이 가등기된 때에는 그 등기이전청구권에 대한 가압류등기는 부기등기의 방법에 의하여 할 수 있다.
- ③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가압류·가처분등기가 이루어진 후 가압류·가처분채권자가 주소를 이전한 때 그 주소변경으로 인한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의 신청은 그 등기명의인이 등기소에 직접 출석하여 신청할 수 없고 집행법원의 촉탁에 의하여야 한다.
- ④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한 법원의 말소등기촉탁 이외의 사유로 가압류 또는 가처분등기를 말소한 때에는 등기관은 지체 없이 그 뜻을 집행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문21】 어느 토지등기부에 대지권인 취지가 등기되어 있다. 다음 사항 중 이 등기부에 등기할 수 있는 사항은?

- ① 토지만을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설정등기
- ② 토지만을 목적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
- ③ 토지만을 목적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 ④ 토지만을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등기

【문22】 법인 등의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주무관청의 허가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 ① 공익법인인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은 매도 뿐 아니라 임대·교환 또는 용도변경을 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까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② 사단법인은 공익법인이라 하더라도 주무관청의 허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 ③ 사립학교의 기본재산에 편입되어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사립학교 경영자 개인의 소유라면 관할청의 허가를 얻어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있다.
- ④ 사립학교의 기본재산을 담보로 제공할 당시 관할청의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저당권실행으로 매각된 때에는 다시 관할청의 허가를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문23】 등기신청권자나 그 대리인이 아니면서 등기신청권자를 대위하여 자기 이름으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부동산 매도인의 채권자가 매도인의 등기의무자로서의 등기신청권을 대위행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 ② 등기신청서에는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는데, 단순한 소제기증명서는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③ 대위등기를 한 경우 등기필증은 채무자(등기권리자)에게 교부하고 등기신청인인 채권자에게는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 ④ 상속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이 있을 때 가압류채권자는 그 기압등기촉탁 이전에 먼저 대위에 의하여 상속등기를 함으로써 등기의무자의 표시가 등기부와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문24】 상속으로 인한 이전등기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 ① 상속으로 인한 이전등기신청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먼저 그 원인일자를 가려 어느 법을 적용할 것인가를 판정한 후에 상속순위 내지 상속분을 따져보아야 한다.
- ② 1960. 1. 1. 민법이 시행되기 전의 구 관습에 의하면 호주가 사망한 경우에 재산상속은 호주상속에 수반하므로 호주상속의 순위에 따라 재산상속이 이루어졌다.
- ③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그 직계비속이 이미 외국으로 귀화하여 우리나라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된 때에는 상속을 받을 수 없다.
- ④ 친양자 아닌 양자는 친생부모가 사망한 경우에도 직계비속으로서 상속권을 가진다.

【문25】 전자신청 지정등기소에서 등기 후 등기필정보를 작성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를 하는 경우
- ② 합유자가 추가되는 합유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하는 경우
- ③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또는 회복등기를 하는 경우
- ④ 관공서가 등기권리자를 위하여 소유권보존 또는 이전등기의 촉탁에 의하여 등기하는 경우